

碩士學位請求論文

아동이 知覺한 어머니의 促進的 意思疏通과
學校適應과의 關係 연구

指導教授 朴 泰 秀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相談心理專攻

金 賢 淑

1999年 8月

아동이 知覺한 어머니의 促進的 意思疏通과
學校適應과의 관계 연구

指導教授 朴 泰 秀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9年 6 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相談心理專攻

提出者 金 賢 淑



金賢淑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9年 7 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國文抄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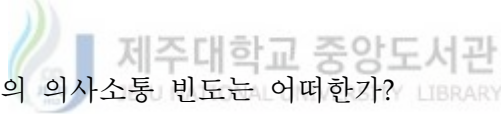
아동이 知覺한 어머니의 促進的 意思疏通과
學校適應과의 關係 연구*

金 賢 淑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相談心理專攻

指導教授 朴 泰 秀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배경변인과 어머니-자녀간의 의사소통 빈도, 촉진적 의사소통,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밝혀 어머니-자녀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와같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빈도는 어떠한가? 

둘째, 어머니와의 촉진적 의사소통 하위요인(공감적 이해, 존중, 순수성)별 수준은 어떠한가?

셋째, 아동의 학교적응 하위요인(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별 수준은 어떠한가?

넷째,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빈도와 아동의 학교적응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다섯째,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과 아동의 학교적응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여섯째,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학교적응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본 논문은 1999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위의 연구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도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585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549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자료처리 방법으로는 일원변량분석과 t검증을 사용하고 SPSS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보면, 첫째, 어머니의 의사소통 빈도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의사소통 빈도가 높고 생활정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빈도가 높다.

둘째,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하위요인별 수준인 공감적 이해 수준은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심화촉진 수준이고, 무조건적 존중 수준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생활정도와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심화촉진 수준이다. 순수성 수준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심화촉진 수준이다.

셋째, 아동의 학교적응 하위요인별 수준에서 교사관계 적응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다. 교우관계적응은 생활수준과 어머니가 고졸의 학력수준일 경우 아동의 학교적응이 높고, 학교수업 적응은 생활수준과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다. 그리고 학교규칙 적응은 아동 배경변인별로 차이가 없다.

넷째, 의사소통 빈도별 학교적응과 그 하위요인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모두 의사소통 빈도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다.

다섯째, 어머니의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존중, 순수성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인 경우 학교적응뿐만 아니라 그 하위요인인 교사관계와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적응도 높다.

여섯째,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과 학교적응간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과 그 하위요인인 공감적 이해 수준, 무조건적 존중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일수록 학교적응과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적응이 높다. 순수성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일수록 학교적응과 학교수업 적응이 높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및 가설	3
3. 연구의 제한점	5
II. 이론적 배경	6
1. 의사소통의 수준과 특성	6
2. 학교 적응·부적응의 개념과 영역	15
3. 촉진적 의사소통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22
III. 연구 방법	25
1. 연구대상	25
2. 측정도구	25
3. 자료처리	29
IV. 연구결과 및 해석	30
1. 의사소통 변인 특성	30
2. 가설의 검증	31
V. 요약 및 결론	54
1. 요약	54
2. 결론	61
3. 제언	62
참 고 문 헌	64
ABSTRACT	69
부 록	72



표 목 차

〈표 III-1〉 아동 배경변인 특성	25
〈표 III-2〉 의사소통 빈도에 따른 세 집단의 평균 점수의 범위와 사례 수	26
〈표 III-3〉 촉진적 의사소통수준에 따른 평균점수의 범위와 사례수	27
〈표 III-4〉 학교적응의 각 영역별 문항수와 문항번호	28
〈표 IV-1〉 의사소통 변인 특성	30
〈표 IV-2〉 아동 배경변인에 따른 의사소통 빈도의 차이	31
〈표 IV-3〉 아동 배경변인에 따른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차이	32
〈표 IV-4〉 아동 배경변인에 따른 공감적 이해 의사소통 수준의 차이	33
〈표 IV-5〉 아동 배경변인에 따른 무조건적 존중 의사소통 수준의 차이	34
〈표 IV-6〉 아동 배경변인에 따른 순수성 의사소통 수준의 차이	34
〈표 IV-7〉 학생변인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	35
〈표 IV-8〉 아동 배경변인에 따른 교사관계 적응의 차이	36
〈표 IV-9〉 아동 배경변인에 따른 교우관계 적응의 차이	37
〈표 IV-10〉 학생배경변인에 따른 학교수업 적응의 차이	38
〈표 IV-11〉 아동 배경변인에 따른 학교규칙 적응의 차이	38
〈표 IV-12〉 의사소통 빈도에 따른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차이	39
〈표 IV-13〉 의사소통 빈도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	41
〈표 IV-14〉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학교적응 하위요인의 차이	42
〈표 IV-15〉 공감적 이해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학교적응 하위요인의 차이	44
〈표 IV-16〉 무조건적 존중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학교적응 하위요인의 차이	46
〈표 IV-17〉 순수성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학교적응 하위요인의 차이	48
〈표 IV-18〉 아동 배경변인들과 의사소통, 학교적응과의 상관관계	49
〈표 IV-19〉 의사소통 빈도와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 학교적응과의 상관관계	51
〈표 IV-20〉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과 학교적응과의 상관관계	52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관계를 맺게 되며 가족들은 의사소통에 의하여 상호 연결되어 가정생활을 영위해간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가족구성원이 사회의 서로 다른 분야와 영역에서 각자의 업무로 바쁘게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족구성원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부족 되기 쉽고,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부모와 자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기대하기란 매우 쉽지가 않다. 특히 자녀가 성장하고 아동기에 접어들게 되면 자녀는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발달이 이루어져 그들만이 감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아동기는 청소년기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시기로서 이 시기의 아동들은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여러 형태의 사회적 인지적 능력을 발달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 올릴 수 있고 발달이 왕성한 시기에 있는 아동기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부모가 자녀의 사회적 행동 발달 과정을 도와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안정감을 제공해 주게 되고 또한 자녀가 사회적 성장과 실패를 경험할 때 사랑과 수용으로 감싸게 된다.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떠한 인간관계를 경험하느냐에 따라 인간은 풍부한 인간으로 발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Patterson(1959)은 상담 그 자체를 일종의 인간관계로 보고 효과적인 상담은 효과적인 인간관계의 원리에 입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Rogers(1961)는 촉진적 인간관계는 상담과 심리치료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어머니-자녀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로서 그 어떤 사회적 관계보다도 의사소

통을 통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자녀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어떤 조력적 인간관계 경험을 갖느냐 하는 것은 자녀의 학교적응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조력관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은 가정교육의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다.

Rogers(1969)에 따르면 촉진적 의사소통은 다양한 수준의 인간관계에서 피조력자의 인성 및 행동이 긍정적으로 촉진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촉진적 의사소통은 교육현장을 비롯하여 다른 수준의 인간관계에도 적용되었으며 교사-학생, 부모-자녀, 고용주-피고용주 등 여타의 광범위한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임이 밝혀졌다(Carkhuff,1967; Gordon,1970).

한편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각자의 상황과 자기의 욕구를 조절해 나가야 하는 적응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자녀가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빈도 및 질적 수준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부모-자녀간에 촉진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도시 산업 사회는 핵가족화와 소형주택의 수출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어 인간성 형성에 큰 장애를 일으키고 사회성 발달에 고립화를 자초하게 되었고, 대중매체 특히 전파매체가 안방에 투입되면서 가족간의 대화는 단절되고 대화가 있다해도 사무적인 대화 이외에 가족간의 진지한 대화는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가족내의 심리적 공동체의식이나 공감의식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으며, 부모-자녀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는 간단하고 의례적인 것이고 대화를 하더라도 표피적인 대화일 뿐이어서 마음 속 깊이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토로할 수 있는 경험을 갖을 수 없기 때문에 교정적 피드백 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박성수, 1986).

이러한 촉진적 의사소통의 공황 속에서 자녀들은 사회화를 겪으면서 자아를 확립하고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가족 구성원과의 건강한 인간관계 속에서 성장 발달하는 아동들이 요구되므로 어머니-자녀간의 촉진적 의사소통의 절실함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배움의 시기에 있는 아동들에게 학교는 그들의 생활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학교는 더욱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늘날 학교의 교육 여건은 여전히 학력 위주의 지나친 경쟁의식과 많은 지식의 양을 학습하기를 요구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통제되고 획일화 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은 흥미와 의욕을 잃어 조화로운 학교생활을 영위해 나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교육이 인간 형성의 한 과정이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 발달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때, 아동들이 학교적응은 교사에게는 물론 부모와 아동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대한 관심사임을 알 수 있다.

이연숙(1990)은 좋은 의사소통 관계는 하나의 사회적 지지로 작용하여 가정에서 적응을 잘하는 청소년은 학교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도 적절히 역할을 해내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민하영(1991)은 청소년들이 비행의 원인으로 가장 중요하게 지적한 것이 부모와의 거리감 있는 의사소통으로 인한 상호이해 부족과 대화 기회 부족으로부터 형성된다고 보았고, 김주분(1994)은 청소년기에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대한 새로운 기술개발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자녀간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인성특성, 학업성취, 문제행동, 자아개념 형성 등 인성발달과 사회화 과정에 중요한 요인임이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밝혀진 바 있다(마정건, 1988; 함병미, 1990; 김용구, 1992; 황동연, 1992).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비해서 어머니-자녀간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밝혀 어머니-자녀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배경변인과 어머니-자녀간의 의사소통 빈도, 촉진적 의사소통,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밝혀 어머니-자녀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수

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빈도는 어떠한가?

둘째, 어머니와의 촉진적 의사소통 하위요인(공감적 이해, 존중, 순수성)별 수준은 어떠한가?

셋째, 아동의 학교적응 하위요인(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별 수준은 어떠한가?

넷째,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빈도와 아동의 학교적응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다섯째,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과 아동의 학교적응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여섯째,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학교적응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상과 같은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아동 배경변인에 따라 의사소통 빈도와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 학교적응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아동 배경변인에 따라 의사소통 빈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아동 배경변인에 따라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 아동 배경변인에 따라 학교적응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 의사소통 빈도에 따라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과 그 하위요인인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존중, 순수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 의사소통 빈도에 따라 학교적응과 그 하위요인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학교적응과 그 하위요인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4-1. 공감적 이해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4.2. 무조건적 존중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4.3. 순수성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 아동 배경변인과 의사소통 빈도,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 학교적응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 5-1. 의사소통 빈도와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 학교적응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 5-2.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과 학교적응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주는 효과에 관한 하나의 기초적 연구로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과 아동의 학교적응 상태를 파악하는데 현장의 참여관찰과 면접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얻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이 지각 범위 내에서 설문지에 의존하여 확보하였다.

둘째, 아동의 학교적응 상태와 수준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류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사 및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에 한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의사소통의 수준과 특성, 학교적응·부적응에 대한 개념과 영역을 살펴본 후 촉진적 의사소통과 학교 적응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 의사소통의 수준과 특성

1) 의사소통의 개념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란 말은 공동 또는 공통성을 의미하는 Communis가 그 어원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사실, 생각, 의견 또는 감정의 교환을 통하여 공통적 이해를 이룩하고, 수용자측의 의식이나, 태도 또는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일련의 행동이다(박연호, 1987).

의사소통은 관점에 따라 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달리하고 있으나, 의사소통은 사람들 간에 태도, 감정, 사실, 믿음,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상호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를 이해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한다(Gross, Crandall & Knoll, 1980). 그러므로 의사소통은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며 가족원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상호반향적인 과정(Galvin & Brommel, 1986)일 뿐 아니라, 가족기능 수행에 있어 빠트릴 수 없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견해와 정의를 종합해 보면 의사소통은 감정, 생각, 느낌,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이며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및 행동으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과정으로서 인간사회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의사소통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의사소통에 대한 정의가 간단히 또는 획일적으로 내려질 수가 없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 측

면에서 정의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구조적 관점, 기능적 관점, 의도적 관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세 가지 관점 및 그에 따른 의사소통의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조적 관점에서 본 의사소통은 정보나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과정이다. 기능적 관점에서 보면 의사소통은 어떤 자극에 대한 유기체의 분별적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의도적 관점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된 행동이라고 본다(차배근,1983).

Schramm(1979)은 의사소통은 첫째, 인간으로 하여금 생활환경에 대한 지식을 공유시키고, 둘째, 새로운 사회성원을 교육시키며, 셋째, 즐거움을 주고, 넷째, 서로 설득하고 통제해서 합의를 얻는 네 가지 기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의사소통은 내적 긴장을 완화시키며, 경험의 공유에 의한 소속감을 얻고, 상대방과의 관계 확립에 의한 안정감을 획득하며, 수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과 접촉에 의한 정서적 안정 혹은 만족, 필요한 정보 입수, 기분전환 등을 의미하고 이런 것이 수용적인 태도를 일으킨다고 한다.

Adamas(1980)는 의사소통의 주요 요소 두 가지를 '말해지는 내용과 말해지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가족에서는 말해지는 내용보다는 말해지는 방법 때문에 더 어려움을 갖는다고 하여 가족 의사소통에 있어서 메시지 자체보다는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순옥(1990)은 의사소통이란 유기체들이 기호를 통하여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해서 서로 공통된 의미를 수립하고 나아가서는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 및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홍기선(1984)은 의사소통은 상징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현상, 즉 정보의 전달 현상이라고 간단히 정의하였다. 그리고 의사소통은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언어적인 것은 언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비언어적인 것은 몸짓이나, 시간, 공간 등을 상징으로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는 의사소통의 형태라고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여러 의사소통에 관련된 정의와 의사소통의 기본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의사소통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반응하는 능력으로서 서로 공통된 의미를 형성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두 사람 이상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인 형태와 비언어적인 형태로 메시지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일컫는다.

2)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수준

부모-자녀간의 이상적인 의사소통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상호 작용에서 억압을 느끼지 않고 자유로운 감정으로 대화를 하며 세대간의 차이를 좁혀주며 이해부족에서 오는 갈등을 감소시켜 주고 좀 더 의미 있고 원만한 부모-자녀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특히 현대 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도는 부모-자녀간에 세대차를 극대화시키고 관심사, 가치관 등의 차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부모-자녀간에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된다. 가족내 의사소통 중에서도 자녀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간의 마음의 연결을 이루며, 상대의 성격을 이해하게 되고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자신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김인희,1993). 또한 자녀들은 가정내의 의사소통 형태로부터 성격형성에 영향을 받게 되며 바람직한 가족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정서장애나 문제행동이 생긴다(김정희, 1987).

따라서 의사소통의 여러 형태를 좌우하는 의사소통의 수준들이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Foley(1974)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기능적으로 되려면, 부모가 개방, 감정이입, 지지, 긍정, 동등성의 자세를 갖고 적극적인 경청의 노력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최선남, 1990). 또 의사소통 수준을 사실에 대한 언어화의 정도와 정서적 감정표출 정도에 따라 Hawkins(1980)는 차단형, 분석형, 억제형, 친숙형으로 분류하였고, 이와 상통하는 국내 논문으로는 유영주(1984)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의사소통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수정하려는 일반적인 지시, 명령, 훈계, 설교, 비판형 등으로 특징지워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정희(1987)는 청소년기 자녀와 어머니간의 의사소통 수준을 수평, 협력적인 쌍방통행식과 수직, 강압, 지시적인 일방통행식으로 구분하였고, 홍기선(1985)은 대인 의사소통 수준을 메시지의 흐름에 따라 일방적 수준, 상호작용 수준으로 나누었다. 또 최선남(1990)은 의사소통 수준은 자녀개방-어머니차단형, 자녀차단-어머니개방형, 쌍방개방형, 쌍방차단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족 구성원 특히 부모-자녀간의 의사전달 형태에 있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자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타인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가족 분위기가 청소년들의 자아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권미경(1993)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하는데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이고 개방적일수록 청소년 자녀의 자기 표현을 증가하며 특히 어머니와 의사소통을 가장 긍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0년대에는 가족의 체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의사소통의 중요한 진단적 기능과 가족 의사소통 수준에 주목해야함을 강조한 Barnes 와 Olson(1985)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수준에 관한 척도 상호복합적 의사소통 모형(Circumplex Model)을 제작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두 가지 수준의 의사소통으로 구분한다. 두 가지 수준의 의사소통이란 가족의 결속력과 적응력의 두 가지 차원에서 기능적인 수준으로의 이동을 도와주는 개방적인 의사소통 수준과 이러한 이동을 방해하는 폐쇄적인 의사소통 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 개방적인 의사소통 수준은 명확하고 모순되지 않은 메시지를 보내고 감정 이입, 지지적인 발언 및 효과적인 문제해결 기술을 지닌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폐쇄적인 의사소통은 일치되지 않고 모순된 메시지를 보내고 부정적인 발언을 하며 이중 속박 및 빈약한 문제 해결 기술을 지닌 의사소통을 의미한다고 밝혔다(민혜영, 1990). 따라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개방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연구들에서 부모와 아동기 자녀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공감, 감정이입, 지지, 긍정 동등성의 자세를 갖고 적극적 경청의 노력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중요성에 비추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선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공통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선 권위적이고 훈계적인 의사소통 양식에서 벗어나 자녀를 완전히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개방적이고 지지적인 의사소통을 하려는 전환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환노력을 통해서만이 부모-자녀간의 단결과 애착을 도모할 수 있으며 자녀의 성공적인 발달과업 완수 및 바람직한 사회적 적응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촉진적 의사소통은 Rogers의 세 가지 수준인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존중, 순수성을 연구의 수준으로 본다.

3) 촉진적 의사소통의 수준과 특징

Rogers(1951)는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존중, 순수성을 촉진적 인간관계 변인으로 들고 있으며, Carkhuff(1969)는 기존 상담이론과 기법들을 분석 검토하여, Rogers의 세 변인 이외에 구체성, 직면, 자아개방, 즉시성을 조력자가 피조력자에게 표현하는 것이 학습자의 인성과 행동에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필요 충분조건이라고 보았으며 카운슬러와 내담자, 교사와 학생, 부모와 자녀사이에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건전한 성격의 발달과 긍정적 행동발달을 촉진한다는 것을 밝혔다.

부모와 자녀간의 신뢰로운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촉진적 의사소통(facilitative communication)은 조력과정에서 단순히 개인의 문제해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간적인 잠재능력까지도 성장, 발달시키려는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이러한 촉진적 의사소통은 흔히 교육적 대화, 상담, 치료적 의사소통 등 여러 측면에서 개념화된다(마정건, 1988).

조력관계의 핵심조건은 인간관계이며 인간관계는 대화를 통해 형성된다. 따라서 자녀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조력적 인간관계의 경험을 갖느냐 하는 것은 자녀의 인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력관계에서 의사소통은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의 의사소통과 그 특성을 달리

한다. 일상적이고 인습적인 대화가 주로 정보의 제공, 설득, 도덕적 판단, 일상적인 정서적 지원을 통하여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 조력적 대화는 기본적인 조력관계를 형성,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내면적 세계를 이해, 탐색하며 문제상황을 규명하고 명료화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도와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박성수,1986 ; 마정건,1988).

Rogers(1961)는 이와 같은 조력원리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특히 어머니-자녀관계는 다른 어떤 사회적 관계보다도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의사소통을 통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으며, 촉진적 의사소통은 조력과정에서 단순하게 개인의 문제해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간적인 잠재능력까지도 성장 발달시키려는 의사소통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력활동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요소를 증대시키고 반면에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를 감소내지 제거할 수 있는 촉진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마정건, 1988). 그러므로 조력관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어머니의 의사소통은 가정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상담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내담자의 인성과 행동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특정한 상담이론이나 기법보다는 상담자-내담자간의 인간관계적인 측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Carkhuff & Berenson, 1967; Truax & Carkhuff,1967; Carkhuff, 1969; Truax & Mitchell, 1971). 즉 상담자가 촉진적 인간관계를 의사소통을 통하여 표현, 전달하고 이를 내담자가 왜곡 없이 지각함으로써 내담자의 인성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Rogers, 1951; Carkhuff, 1969).

Rogers(1969)가 제시한 촉진적 의사소통의 수준들에는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존중, 순수성이 포함되는데 이들의 개념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공감적 이해

공감적 이해(empathic understanding)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사적인 세계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이때 상담자는 어디까지나 '마치---인 것

처럼'의 태도를 지님으로써 자아정체를 잃지 않으면서 자신의 것처럼 내담자의 사적 세계를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즉 상담자는 내담자의 생각, 느낌, 행동을 내담자 자신의 내적 준거체제를 통해서 이해해야 함을 뜻한다. 상담자 자신의 외적 준거체제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 자신이 곧 내담자의 입장이 되어 그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고 경험해 보는 감정이입적인 이해인 것이다(고명규, 1991). 이때 상담자는 내담자의 입장에 서서 내담자를 이해하려고 하나 상호간의 인간적 경계를 유지하려고 한다(Patterson, 1974).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상담자는 내담자가 명백히 표현하고 있는 표면적 감정, 사고 뿐만 아니라 명백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내담자의 내면적 감정, 사고를 이해하고 표현하여 내담자의 심층적인 자기탐색을 촉진하게 된다 (Carkhuff, 1969).

Patterson(1974)은 공감적 이해는 최소한 다음 세 단계를 표현하고 있다.

첫째, 내담자는 상담자가 자신의 사적인 세계로 들어오는 것을 기꺼이 허용하고 자신의 지각과 감정을 상담자에게 표현하며 상담자는 이 의사소통에 주의를 기울인다. 둘째, 상담자는 내담자가 표현, 전달하는 것을 내담자의 내적 준거체제를 가지고 왜곡 없이 정확하게 이해한다. 셋째, 상담자는 내담자의 감정과 지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였다는 것을 내담자에게 의사소통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상담자가 내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내담자와 더불어 느끼고 경험함으로써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적 심리를 자유롭게 표현, 탐색하여 진정한 자기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분노, 두려움, 혼돈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면서도 부모 자신의 분노, 두려움, 혼돈을 자녀의 그것에 관련시키지 않는 것이다. 즉 부모는 자녀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지각하고 있는가를 부모 자신의 개념들을 개입시키지 않고 자녀의 내적 준거체제에 따라서 정확히 이해하여 이를 왜곡 없이 의사소통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나.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무조건적 존중(unconditional positive regard)은 내담자를 독립된 인간으로 수용하여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가질 수 있고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고유한 의미를 발견하도록 허용하는 태도를 의미한다(Rogers,1961). 상담자의 존중적인 태도가 내담자의 특정행동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조건적 존중이라 할 수 있다.

내담자의 증상이 무엇이든 내담자의 문제가 무엇이든 그에 따라 상담자의 태도나 기법이 달라지는 일없이 그를 한 인격체로 대하며, 오로지 그 순간 순간의 그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 등을 아무런 선입견이나 판단을 두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유기체적 평가 과정에 따라 자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내담자의 긍정적인 자기 변화 및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에 대한 상담자의 확고한 믿음을 뜻한다(고명규,1991). 무조건적 존중은 내담자가 어떤 행동을 하였고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던 간에 그를 존재하고, 성장, 발달할 필요가 있는 귀중한 한 인간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 뿌리를 박고 있다(박성수, 1986). 상담자는 비판단적 자세로 내담자의 감정, 사고, 행동을 수용하고 이를 의사소통을 통하여 표현 전달하는데, 그렇다고 상담자가 내담자의 모든 행동을 옳다고 인정하거나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담자는 조력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관이나 윤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Patterson, 1974). 즉 조력자가 피조력자의 인간적 가치와 잠재적 가능성에 대하여 깊은 배려를 하는 것이다(Carkhuff,1969).

따라서 무조건적 존중은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따뜻한 배려를 하는 것이다 이때 배려는 비소유적이고 자녀의 어떤 특정 행동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자녀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 수용하여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가질 수 있고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고유한 의미를 발견하도록 허용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다. 순수성

Rogers(1961)는 순수성(genuineness)을 상담의 필수조건으로 중요시하고 있다. 그는 순수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통합되고 일치될 필요가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인간관계에서 어떤 가면을 쓰거나, 역할놀이를 하거나, 가식을 부리는 허구적인 태도를 벗어나서 진정한 자기가 되어야 한다. 상담자의 경험과 그에 대한 인식과 표현이 일치되어야 한다.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것을 충분히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하여 솔직하게 표현할 때 상담자는 진실되고 일치성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순수성이 결여되면 조력과정에서 의미있는 학습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조력과정에서 상담자의 내면적 경험, 그에 대한 인식과 표현이 모두 일치되어야 내담자의 긍정적 인성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Rogers는 지적하고 있다.

이 순수성이라는 조건은 흔히 진지성, 명료성, 일치성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상담자가 단일화되어 있고 통합되어 있으며 일관성이 있는 즉 그의 인격과 그의 말 사이에는 모순이 없으므로 내담자는 상담자가 진실한 사람이며, 자기를 진실하게 대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만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이해와 수용도 제대로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렇게 상담자가 상담관계에서 자신의 권위나 체면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혹은 표현하면 할수록 그만큼 내담자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Rogers는 상담자의 태도로서 순수성의 조건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다(고명규, 1991).

다시 말해서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하여 어떤 가면을 쓰거나 역할놀이를 하지 않으면서 순수하고 진실된 인간적 관심을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상담자의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은 일치된다.

그러나 부정적 감정은 솔직하게 표현하되 비파괴적, 건설적으로 표현하여 내담자와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해야한다. 즉, 상담관계를 증진하고 내담자가 부정적 감정이나 경험을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표현하여야 되는가를 학습하도록 도와준다(박성수,1986).

Carkhuff와 Berenson(1967)은 상담자가 부정적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비 파괴적으로 표현할 것을 강조하여 이것을 촉진적 순수성이라고 부르고 있다.

따라서 순수성은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것을 충분히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와의 인간관계에서 어떤 가면을 쓰거나 역할놀이를 하거나 가식을 부리는 허구적인 태도를 벗어나서 진정한 자기가 되어야한다. 이와 같은 순수성이 결여되면 조력과정에서 의미있는 학습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촉진적 의사소통을 Rogers(1951)가 효율적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인간관계 조건으로 제안한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존중, 순수성의 태도를 조력자가 학습자에게 의사소통을 통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2. 학교 적응 · 부적응의 개념과 영역

1) 적응 · 부적응의 개념

적응(Adjustment)은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이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사회의 규범에 대하여 적절하고 조화 있는 행동을 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자기자신도 만족하는 경우를 적응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고 통제하여 조화를 이루는 과정(장대운외, 1985), 개체와 환경간에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행동과정(이상로외, 1979)이라고 하겠다. 또한 적응이란 생활체가 환경에 대해 만족한 관계를 갖는 것을 뜻한다. 적응을 한 개의 과정으로서 생각하면 생활체가 자기 자신과 그 환경 사이에 조화된 관계를 맺게 되도록 자기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던가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교육학대사전, 1965).

Symonds(1946)도 적응을 심리학적으로는 욕구저지에 대한 반응과 또는 욕구해소에 대한 연속과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Gates(1950)은 적응은 개체와 환경과의 조화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행동을 변화시켜 가는 계속적인 과정으로서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

여 개인의 내적 적응과 사회의 외적 적응의 조화를 의미한다고 했으며, 개인적으로는 행복감에 넘쳐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당면 문제를 효과적, 능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 하였다.

Shaffer(1956)은 욕구불만의 이론을 인용하여 적응을 자기욕구의 사회환경 상황과의 조정이라고 보았다.

Allport(1961)는 적응이란 환경에 대한 자발적 창조적 행동이며 그 필수조건으로 행동의 결과가 개인에게 안정감을 주고 사회의 가치, 규범, 질서에 합치되는 상태라고 하였다.

Hinshaw(1962)는 적응이란 항상 개인적,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환경적 요인의 두 가지 요인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즉 개인이 갖는 여러 가지 욕구를 사회가 적당히 받아들이는 동시에 사회로부터의 요청을 개인이 무리 없이 원만하게 잘 받아 들여서, 개인과 사회 사이에 불균형과 불안 등의 긴장을 없애고 조화가 잘 되고 균형과 잘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Lazarus(1969)는 적응은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과정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결국 적응이란 생물학적으로는 생체의 욕구에 대한 순응이며, 심리학적으로는 개체의 욕구 해소 과정으로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포함된 과정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여러 적응이론 들을 종합해 볼 때 적응이란 개체와 환경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가는 과정이며 욕구좌절이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건전한 적응은 개인의 성장 개념과도 일치한다. 성장은 환경과 유전과 상호작용적인 변화를 의미하거나 잠재력 개발 및 자기 실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적응은 잠재력의 최대 발달이나 자아실현인의 육성으로 유도될 수 있다.

정상적인 사회의 성원으로서 성장에 방해가 되는 부적절한 행동이나 부적응행동을 적응의 대립적 견지에서 규정지어 볼 필요가 있다.

인간은 대부분 그의 욕구에 의해 행동하게 되며 그 욕구는 충족되기도 하지만 충족되지 않거나 지연되기도 한다. 부적응이란 어떤 사람이 살아가고 있

는 가정, 사회, 직장, 그 밖의 환경적 요구에 자신을 적응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개인이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그 사회의 질서규범에 조화되지 못하여서 사회에 대하여 장애가 될 뿐 아니라 그 개인 자신의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개인의 상태이다(교육학사전, 1965).

부적응 행동이란 한 개인이 그의 욕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하고 알맞은 문제해결을 하지 못하며 개인의 행동이 그 사회의 일반과 다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 사회에 적응해 나가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했다(송례자, 1990).

서용운(1979)은 부적응이란 자기가 사회 생활에 있어서 왜곡된 습관에 의해 생활이 통제되어 순리대로 처리할 수 없으며 진보와 개선보다 공격적이고 퇴영적인 행동이 보다 많이 수반되어 지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Rogers(1951)는 촉진적 의사소통이 인성발달과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촉진적 의사소통의 결여가 원인이 되어 인성의 왜곡 및 부적응이 초래되는 과정 및 기제와 그 반대로 촉진적 의사소통이 심리적 적응을 증진시키는 과정 및 기제 즉 심리적 조력의 기제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다. 즉 Rogers는 성격적인 부적응의 원인을 인간관계 특히 부모-자녀와 같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다. 촉진적 의사소통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조력자의 높은 수준의 촉진적 의사소통은 피조력자의 인성과 행동에 긍정적 변화와 관련이 있고, 비촉진적 의사소통은 정서적 장애, 부적응 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대인간의 의사소통 장애가 개인 내적 의사소통의 장애를 초래하여 개인의 유기체적 경험과 자아개념의 불일치가 증대하여 부적응 행동이 유발되고, 촉진적인 대인간의 의사소통 차단되었던 개인 내적 의사소통을 재개하여 정서적 안정과 적응행동을 가져온다는 Rogers의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마정건, 1988).

Bower(1970)는 부적응이란 다음과 같은 경향을 가진 아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지적 감각적 혹은 신체적으로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학업 성취도가

비교적 낮은 아동

둘째, 친구나 교사와의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이룩하고 이를 유지하는 능력이 부족한 아동

셋째, 정상적인 조건하에서도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아동

넷째, 항상 불행하고 억압된 기분에 빠져있는 아동

다섯째,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신체적 고통이나 공포심을 갖는 경향의 아동이라고 하였다.

Clarke(1977)는 정서 부적응아의 행동특성을 10가지로 나누었다.

- ① 심한 위축을 보이며, 현실세계보다 자기자신만의 환상세계에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아동.
- ② 심한 과잉행동을 보이며,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고 집중이 잘 안되는 아동.
- ③ 교사에 대해 매우 도전적이고, 부정적이며, 적대적인 아동.
- ④ 대인관계에 심한 어려움을 느끼는 아동.
- ⑤ 물건을 잘 수수고, 파괴하는 성향을 띠는 아동.
- ⑥ 감정변화가 빈번하고 강렬하며,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잘 동요되고 불안해 하며 두려워하는 아동.
- ⑦ 한자리에서 멍들든가, 양손을 쥐어뜯든가 혹은 특정한 어느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등 특이한 행동습관을 가진 아동.
- ⑧ 일상적인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매우 강박적인 행동패턴을 가진 아동.
- ⑨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수 없는 아동.
- ⑩ 전혀 말을 하지 않거나 특정한 사람에게만 말을 하는 아동으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여러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 학교에서의 부적응 행동이란 아동의 태도 및 행동이 지속적으로 학교생활의 질서를 문란 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아동자신의 건전한 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동으로

- ① 자신의 욕구에 만족하지 못하여 문제해결을 하지 못하는 아동
- ② 자신의 주위환경에서 항상 갈등과 욕구좌절이 일어나는 아동
- ③ 공격적이고 퇴행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동

④ 사회의 일반인들과 다른 행동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아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김충국, 1995).

이처럼 부적응이란 자신의 주변환경과 갈등을 일으키고, 자신의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여 욕구 좌절이 생기며, 사회의 질서 규범에 조화되지 못하여 사회의 대한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오는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학교적응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의도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관이 학교라고 할 때 학생들이 학교 적응이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을 셋으로 나누어 가정, 학교, 사회로 볼 수 있다. 그 중 학교에서 학생이 받는 교육적 영향을 통틀어 학교생활이라 한다. 넓은 뜻에서 학교에서의 비교육적 영향도 학교생활에 포함된다. 학교 생활은 가정생활, 사회생활과 종적, 횡적 관계가 있다. 학생들은 교과활동, 특별활동, 기타 운동회, 소풍, 학생자치회, 여행 등을 통하여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다. 학교 생활 속에는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학생 상호간의 관계가 있고 학급생활, 기숙사 생활 등도 학교생활을 구성한다.

학교적응이란 학생이 대인관계나 학교의 규준, 질서 등에 있어서 적절하고 자기자신도 만족하는 경우(민영순, 1979)라 했으며, 장호성(1987)은 민영순(1979)과는 달리 학교의 교육과정 참여 형태를 기준으로 학교적응을 정의한다. 그에 의하면 적응의 개념은 지적, 도덕적, 성장을 위해서 교육적인 과정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부적응이다. 이러한 장호성(1987)의 학교적응 개념은 학생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학교적응 정도를 설명하려는 노력이다. 위 정의와는 달리 안영복(1984)은 학교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조정하는 능력의 정도로 파악한다. 그에 의하면 학교적응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

시키거나 자신이 학교생활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바람직하게 수용되는 것이라 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만족하며 학업성적이 향상되고 행동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성장은 물론 학교와 사회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학교생활에서의 완전한 적응과 완전한 부적응은 실제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모든 사람의 적응은 이 양극 사이의 연속선상 어느 위치에 있는 정도의 차이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민영순, 1979).

이상에서와 같이 학교적응은 학생의 교육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특히 부모나 교사들의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부적응으로 교육적 기회를 낭비하기보다는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잘 적응된 생활을 영위하기를 당연히 기대한다. 결국 아동들이 학교생활에 비교적 잘 참여하고 대체로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을 때 학교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렇지 못한 경우를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을 아동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자기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교사 및 교우관계가 잘 조화되어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로 정의한다.

3) 학교적응 영역

학교적응 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적응 영역을 규정해야 한다. 학교적응 영역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atta, Schaefer 및 Davis(1968)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적응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문선모(1977)가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 남학생은 인지기술 영역에서 여학생은 교사관계, 급우관계, 수업참여 및 자기 통제 영역에서 보다 점수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어머니의 연령이 40대인 학생이, 어머니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잘되는 것으로 인지되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종교, 학생의 지능, 행동발달상황, 교과학습상황 등 학생의 배경적 특성

에 따른 학교적응을 밝히고 있다. 즉 지능, 성적, 행동발달상황이 좋을수록 학교적응도 잘 되는 것으로 인지되었다.

유상철(1982)은 학교생활 전반, 수업일반, 행사와 특별활동에 대한 만족감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의의있게 높게 나타났으며, 행사와 특별활동에 대한 만족감은 지방학생이 도시 학생보다 의의있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 전반, 수업일반, 교사에 대한 만족감은 성적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의의있게 높게 나타났으나, 학교 내 인간관계와 학교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감은 세 개의 차원에서 의의있는 차이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문선모(1984)는 어머니의 연령, 교육정도, 가정의 종교 및 학생의 지능, 행동발달, 교과학습 발달상황은 학교적응과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성별간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에 다소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는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다.

백종흠(1984)은 성별간에는 학교적응에서 유의한 차가 없으나 지역간에는 도시 학생이 농촌 학생보다 더 잘 적응하고 있으며, 교사관계, 급우관계, 수업참여, 자기통제의 학교적응 영역에서는 성별과 지역간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고,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학교적응은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안규복(1986)은 학교생활일반, 학교수업, 교사에 대한 태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긍정적이며 급우에 대한 태도, 학교의 물리적 환경, 특별활동에 대한 태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일반, 학교수업, 특별활동에 대한 태도는 도시 학생이 농촌학생보다 긍정적이며 학교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태도는 농촌 학생이 도시 학생보다 긍정적이고 교사에 대한 태도와 급우에 대한 태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임정순(1993)은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은 교사관계, 학교규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남자아동에 비해 여자아동이 잘 적응하고 있으며, 교우관계, 학교수업은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학교적응은 아동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자기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교사 및 교우관계가 잘 조화되어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에 바탕을 두고 아동

의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학교적응 영역을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으로 구분하였다.

3. 촉진적 의사소통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대해 정혜영(1987)은 부모와의 의사소통 만족감이 높을수록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는 건설적인 방식으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김미호(1989)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녀의 사회적 행동특성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 의하면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녀의 사회적 행동 특성과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Bueke 와 Weir(1976)는 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일차적으로 그들의 동료로부터 조력을 구하고, 그 다음으로 어머니, 아버지 순으로 조력을 구한다고 하면서 조력자로서의 부모의 반응, 행동과 청소년의 대인관계 행동 및 정서적 안정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들은 부모의 구체적 지원반응을 부모가 공감적 이해와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자녀의 말에 경청하고 문제해결에 관하여 자녀의 자기탐색과 자기표현을 촉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Beakel(1971) 도 아동의 부적응 행동과 가족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관련이 있음을 밝힌바 있다 즉 이중 의미의 불일치 된 의사소통은 아동에게 갈등과 불안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의사소통의 수준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정체감 형성(김정희, 1987), 사회 인지능력(권미경, 1993), 문제행동(정명희, 1987)등 정서발달과 사회화 과정에 중요한 요인임이 증명되고 있어 자녀의 청소년기에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대한 새로운 기술개발이 요구된다고 하였다(김주분, 1994). 그리고 이연숙(1990)은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상호간의 대화는 청소년기의 자녀가 사회화를 겪으면서 자아를 확립하고 사회의 원만한 적응능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지현(1996)은 가족 구성원간에 애정과

신뢰에 기초하고 있는 가정일수록 학교에 더욱 잘 적응한다고 하였다. 문선모와 윤기수(1977)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정도와 학교적응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단지 어머니의 교육정도와 학교적응의 관계가 있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인 성취-비성취, 개방-폐쇄, 친애-거부, 자율-타율 변인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가족 구성원간에 애정과 신뢰에 기초하고 있는 가정일수록 학교에 더욱 잘 적응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개방적일수록 학교에 더 긍정적으로 적응한다고 하였다. 이는 위의 연구에서 볼 때,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고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는 가정일수록 자녀는 학교에 잘 적응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상의 여러 연구에서 볼 때 부모-자녀간에 공감적 이해, 존중, 순수성이 결여된 비축진의사소통이나 부모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이 불일치되는 모호한 의사소통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조력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단절되거나 부족될 때에는 자녀에게 부적응 행동이 유발되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학교생활의 부적응으로 인하여 청소년 비행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다.

Glaser(1979)는 의사소통과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이상성격을 보이는 아동의 어머니는 지배적, 통제적인 태도를 보여 자녀의 말을 경청하려 하지 않고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머니-자녀간에 쌍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방적 의사소통만이 이루어져 어머니-자녀관계가 악화된다.

둘째, 어머니는 의사소통과정에서 끊임없이 자녀의 메시지를 부정한다. 어머니는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하고 어머니 자신이 자녀의 감정과 사고를 대변하려고 한다.

셋째, 부모 특히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표현이 불일치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의사소통과정에서 어머니의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흔히 불일치하여 자녀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마정건,198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자녀간에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존중, 순

수성이 결여된 비촉진의사소통이나 부모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이 불일치된 모호한 의사소통이 자녀의 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자녀의 사회화와 적응, 문제행동, 비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부모-자녀간 촉진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학교적응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ogers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 58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처럼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촉진적 의사소통 설문지의 문항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과 실시요령에 대하여 사전 이해가 된 담임교사의 협조를 구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표집된 사례수는 학생 585명이었으나 자료처리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자료처리과정에서 제외시키고 549명을 유효한 표집으로 삼았다. 본 연구대상의 아동 배경변인 특성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아동 배경변인 특성

변인	빈도	%	
성별	남학생	266	48.5
	여학생	283	51.5
생활정도	낮음	12	2.2
	보통	456	83.1
	높음	81	14.8
어머니의 학력수준	중졸이하	99	18.0
	고졸	376	68.5
	대졸이상	74	13.5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의사소통 빈도, 촉진적 의사소통,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와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소통 설문지

(1) 의사소통빈도

본 연구에서 어머니-자녀간의 의사소통 빈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는 총 5문항의 질문지로 Demo, Small과 Savin-Williams (1987) 가 제작한 문항을 김용구(1992)가 초등학교 학생에 알맞게 수정하여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학교 생활, 친구관계, 취미, 어려움, 성격에 관하여 어머니-자녀간의 의사소통 빈도를 4점 척도(1점 : 1달에 1번도 안됨, 2점 : 1달에 1-2번, 3점: 1주일에 1-2번, 4점: 하루에 1번 이상)에 반응하도록 되어있고, 척도에 의거 점수를 준다. 의사소통빈도 점수의 범위는 5점에서 20점까지가 된다. 점수가 많을수록 빈도가 높다. 세 집단의 평균점수 범위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의사소통 빈도에 따른 세 집단의 평균 점수의 범위와 사례 수

빈도 집단	평균점수 범위	사례수
집단 1 (낮은집단)	1.0 이상 2.0 이하	103
집단 2 (보통집단)	2.0 초과 3.0 이하	253
집단 3 (높은집단)	3.0 초과 4.0 이하	193
계		549

(2) 촉진적 의사소통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Carkhuff(1969)의 촉진적 의사소통 척도를 기초로 마정건(1988)이 제작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검사>를 김용구(1992)가 초등학교 학생에 알맞게 수정 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도구는 21문항의 3개의 변인, 즉 공감적 이해, 존중, 순수성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마다 가상된 자극문항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다섯 가지 수준으로 제시하였다. 촉진적 의사소통 척도의 하위 변인별 수준 및 문항별 수준 표시는 <부록 1>에 제시되었고, 하위변인별 문항배열 및 항목별 수준표는 <부록 2>에 제시되었다. .

응답에 대한 채점은 1수준 1점, 2수준 2점, 3수준 3점, 4수준 4점, 5수준 5점으로 점수를 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21점에서 105점까지가 된다.

촉진적 의사소통수준을 구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촉진적 의사소통의 점수를 평균점수에 따라서 5가지 수준의 집단으로 나누었다. 5가지 수준의 집단별 평균점수 범위와 사례수는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촉진적 의사소통수준에 따른 평균점수의 범위와 사례수

의사소통수준	평균점수 범위	사례수
수준 1	1.5 미만	8
수준 2	1.5 이상- 2.5 미만	75
수준 3	2.5 이상- 3.5 미만	314
수준 4	3.5 이상- 4.5 미만	151
수준 5	4.5 이상	1
계		549

<표 II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수준을 통합하여 비촉진수준 집단, 기본적인 촉진수준 집단, 심화촉진수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1,2수준을 통합한 집단을 '비촉진수준집단'으로, 3수준은 '기본적 촉진수준집단'으로, 4,5수준을 통합한 집단을 '심화촉진 수준집단' 으로 명명하였다. 이런 분류방식은 1,2수준을 촉진적 의사소통이 안되는 수준으로, 3수준은 최소한의 촉진적 수준으로, 4,5수준을 적극적인 성장 촉진적 수준으로 보는 Carkhuff(1969)의 입장과는 일치하는 것이다.

의사소통 수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계산한 cronbach'a의 문항 동질성 계수는 .7947로 산출되었다.

2) 학교적응 검사

본 검사는 김호권(1965)의 '표준 생활 검사지'와 유상철 (1982)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태도 검사지'를 참고로 하여 임정순(1993)의 32문항으로 구성된 검사지 내용을 초등학교에 알맞게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여 4개 영역으로 구성된 5지 선다형 판정척도이다. 이 질문지는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하위 영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교사관계 : 학생과 교사와의 조화로운 관계 정도, 도움을 청하려는 정도, 꾸중에 대한 반응, 긍정적 감정의 적절성 여부.
- ② 교우관계 : 친구와의 조화로운 관계 정도, 학급 생활의 적극성 여부, 친구 대한 관심 여부.
- ③ 학교수업 : 수업 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공부할 때의 어려움, 주어진 과제의 해결 여부.
- ④ 학교규칙 : 학교생활의 여러 장면에서의 자신의 행동을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 올바르게 행동하는가의 여부.

각 영역별 문항수와 문항번호는 다음 <표 III-4>와 같다.

<표 III-4> 학교적응의 각 영역별 문항수와 문항번호

학교적응	문항수	문항번호
교사관계	8	1, 5, 9, 13, 17, 21, 25, 29
교우관계	8	2, 6, 10, 14, 18, 22, 26, 30
학교수업	8	3, 7, 11, 15, 19, 23, 27, 31
학교규칙	8	4, 8, 12, 16, 20, 24, 28, 32

이 검사의 신뢰도는 측정결과, 내적 일치도 (cronbach'a)를 산출하여 추정하였고, .8514로서 비교적 높은 안전성을 보이고 있다.

질문지 작성 방법은 Likert식 척도에 따라 각 문항의 반응 양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약간 그렇지 않다”(2점), “그저 그렇다”(3점) “약간 그렇다”(4점), ‘아주 그렇다“(5점)의 단계로서, 정해진 반응에 따라 각각 배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잘 적응하는 학생으로 규정하였다. 단 부정 문항(15, 21, 25, 26, 27, 30, 31번 문항)은 역산처리 하였다.

3. 자료처리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와 t검증을 사용하며, 상관계수를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간에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이상의 자료는 부호화(coding)의 과정을 거쳐 personal computer SPSS(statistical package sciences)로 통계 처리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기초가 되는 의사소통 변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의사소통 빈도와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 분포를 알아보고 각 가설 검증에 따라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1. 의사소통 변인 특성

<표 IV-1> 의사소통 변인 특성

변 인		빈 도	%	
의사소통빈도	낮은집단	103	18.8	
	보통집단	253	46.1	
	높은집단	193	35.2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	공감적 이해	비촉진	132	24.0
		기본촉진	277	50.5
		심화촉진	140	25.5
	무조건적 존중	비촉진	112	20.4
		기본촉진	279	50.8
		심화촉진	158	28.8
	순수성	비촉진	94	17.1
		기본촉진	254	46.3
		심화촉진	201	36.6
전 체	비촉진	83	15.1	
	기본촉진	314	57.2	
	심화촉진	152	27.7	
계		549	100.0	

의사소통 빈도에 대해서 낮은 집단 103명(18.8%), 보통집단 253명(46.1%), 높은집단이 193명(35.2%)으로 조사되었고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에 대해서는 비촉진 집단이 83명(15.1%), 기본촉진 집단은 314명(57.2%), 심화촉진 집단 152명(27.7%)으로 나타났다.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하위요인인 공감적 이해에 대해서는 비촉진집단이 132명(24.0%), 기본촉진 집단 277명(50.5%), 심화촉진 집단 140명(25.5%)으로 나타났다.

무조건적 존중에 대해서는 비촉진집단이 112명(20.4%), 기본촉진 집단 279명(50.8%), 심화촉진 집단 158명(28.8%)으로 조사되었고 순수성에 대해서는 비촉진집단이 94명(17.1%), 기본촉진 집단 254명(46.3%), 심화촉진 집단 201명(36.6%)으로 나타났다.

2. 가설의 검증

<가설 1> 아동 배경변인에 따라 의사소통 빈도와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 학교적응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아동 배경변인에 따라 의사소통 빈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IV-2> 아동 배경변인에 따른 의사소통 빈도의 차이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F
성 별	남 학 생	266	1.985	.6948	t=-5.844**
	여 학 생	283	2.332	.6964	
생활정도	낮음	12	1.917	.7930	F=7.305**
	보통	456	2.123	.7065	
	높음	81	2.432	.7060	
어머니의 학력수준	중졸이하	99	2.061	.6824	F=2.078
	고졸	376	2.168	.7164	
	대졸이상	74	2.284	.7498	

** p<.01

의사소통 빈도가 아동 배경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차이 검증한 결과는 <표 IV-2>와 같다.

성별과 생활정도별로 의사소통 빈도에 대해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어머니의 학력수준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의사소통 빈도가 높고 생활정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1-2. 아동 배경변인에 따라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IV-3> 아동 배경변인에 따른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차이

아동 배경변인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F
성 별	남 학 생	266	2.056	.6563	t=-2.461*
	여 학 생	283	2.191	.6237	
생활정도	낮음	12	2.000	.7385	F=2.615
	보통	456	2.103	.6431	
	높음	81	2.272	.6126	
어머니의 학력수준	중졸이하	99	1.990	.5975	F=3.114*
	고졸	376	2.144	.6496	
	대졸이상	74	2.216	.6468	

* $p < .05$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이 아동 배경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차이 검증한 결과는 <표 IV-3>과 같다.

성별과 어머니의 학력수준별로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에 대해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생활정도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이 높고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1) 아동 배경변인에 따른 공감적 이해 의사소통 수준의 차이

<표 IV-4> 아동 배경변인에 따른 공감적 이해 의사소통 수준의 차이

아동 배경변인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F
성 별	남 학 생	266	1.989	.7242	t=-.833
	여 학 생	283	2.039	.6856	
생활정도	낮음	12	1.833	.7177	F=4.446*
	보통	456	1.983	.6983	
	높음	81	2.222	.7071	
어머니의 학력수준	중졸이하	99	1.960	.6987	F=.516
	고졸	376	2.019	.7134	
	대졸이상	74	2.068	.6689	

* p<.05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하위요인인 공감적 이해 의사소통 수준이 아동 배경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차이 검증한 결과는 <표 IV-4>와 같다. 생활정도별로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공감적 이해 의사소통 수준에 대해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성별과 어머니의 학력수준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생활정도가 높을 수록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하위요인인 공감적 이해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 학생배경변인에 따른 무조건적 존중 의사소통 수준의 차이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하위요인인 무조건적 존중 의사소통 수준이 아동 배경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차이 검증한 결과는 <표 IV-5> 와 같다.

성별과 어머니의 학력수준별로 무조건적 존중 의사소통 수준에 대해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생활정도별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하위요인인 무조건적 존중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이며 생활정도와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무조건적 존중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IV-5> 아동 배경변인에 따른 무조건적 존중 의사소통 수준의 차이

아동 배경변인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성 별	남 학 생	266	1.985	.7056	t=-3.249**
	여 학 생	283	2.177	.6768	
생활정도	낮음	12	2.083	.5149	F=3.046*
	보통	456	2.053	.6965	
	높음	81	2.259	.7032	
어머니의 학력수준	중졸이하	99	1.889	.6529	F=6.073**
	고졸	376	2.104	.7061	
	대졸이상	74	2.243	.6582	

** $p < .01$, * $p < .05$

3) 학생배경변인에 따른 순수성 의사소통 수준의 차이

<표 IV-6> 아동 배경변인에 따른 순수성 의사소통 수준의 차이

아동 배경변인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성 별	남 학 생	266	2.128	.7155	t=-2.162*
	여 학 생	283	2.258	.6949	
생활정도	낮음	12	2.250	.7538	F=2.250
	보통	456	2.167	.7100	
	높음	81	2.346	.6738	
어머니의 학력수준	중졸이하	99	2.061	.6972	F=2.502
	고졸	376	2.213	.7136	
	대졸이상	74	2.284	.6728	

* $p < .05$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하위요인인 순수성 의사소통 수준이 아동 배경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차이 검증한 결과는 <표 IV-6>과 같다.

성별로 순수성 의사소통 수준에 대해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생활수준별, 어머니의 학력수준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하위요인인 순수성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1-3. 아동 배경변인에 따라 학교적응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IV-7> 학생변인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

학생배경변인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F
성 별	남학생	266	106.21	15.44	t=-2.724**
	여학생	283	109.75	14.92	
생활수준	낮음	12	95.58	18.24	F=5.811**
	보통	456	107.81	14.89	
	높음	81	111.14	15.99	
어머니의 학력수준	중졸이하	99	103.97	14.85	F=4.661*
	고졸	376	109.18	15.33	
	대졸이상	74	107.64	14.70	

** $p < .01$, * $p < .05$

<표 IV-7>는 학교적응이 학생의 성별, 가정생활의 정도,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표 IV-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의 성별과 생활수준별로 학교적응에 대해 $p < .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어머니의 학력수준은

p<.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교적응이 높고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가 고졸의 학력수준일 경우 자녀의 학교적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1) 아동 배경변인에 따른 교사관계 적응의 차이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교사관계 적응이 아동 배경변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차이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IV-8>과 같다.

<표 IV-8> 아동 배경변인에 따른 교사관계 적응의 차이

아동 배경변인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F
성 별	남학생	266	25.77	5.19	t=-4.401**
	여학생	283	27.69	5.04	
생활수준	낮음	12	22.92	6.76	F=3.404*
	보통	456	26.87	5.03	
	높음	81	26.74	5.74	
어머니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99	26.00	5.01	F=1.528
	고졸	376	27.00	5.13	
	대졸이상	74	26.55	5.76	

** p<.01, * p<.05

<표 IV-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로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교사관계 적응에 대해 p<.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며 생활수준별로는 p<.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교육수준별로는 의미있는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교사관계 적응이 높고 생활수준이 보통이거나 높은 자녀가 생활수준이 낮은 자녀보다 교사관계 적응이 높음을 보여준다.

2) 아동 배경변인에 따른 교우관계 적응의 차이

<표 IV-9> 아동 배경변인에 따른 교우관계 적응의 차이

아동 배경변인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F
성 별	남학생	266	28.59	5.39	t=-1.128
	여학생	283	29.10	5.33	
생활수준	낮음	12	26.67	5.48	F=4.791**
	보통	456	28.64	5.37	
	높음	81	30.40	5.04	
어머니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99	27.52	5.47	F=5.133**
	고졸	376	29.33	5.26	
	대졸이상	74	28.23	5.41	

** p<.01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교우관계 적응의 아동 배경변인에 어떤 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차이 검증한 결과는 <표IV-9>와 같다.

<표IV-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활수준과 어머니의 학력수준별로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교우관계적응에 대해 p<.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성별로는 의미있는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생활수준이 높고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고졸인 경우 교우관계적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 학생배경변인에 따른 학교수업 적응의 차이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학교수업 적응이 아동 배경변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차이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IV-10>과 같다.

<표 IV-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활수준과 어머니의 학력수준별로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학교수업 적응에 대해 $p<.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성별로는 의미있는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생활수준과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수업 적응이 높음을 보여준다.

<표 IV-10> 학생배경변인에 따른 학교수업 적응의 차이

아동 배경변인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F
성 별	남학생	266	26.19	5.38	t=-.780
	여학생	283	26.54	5.21	
생활수준	낮음	12	22.92	4.81	F=6.257**
	보통	456	26.20	5.16	
	높음	81	27.89	5.75	
어머니의 학력수준	중졸이하	99	24.83	4.97	F=5.417**
	고졸	376	26.65	5.33	
	대졸이상	74	27.05	5.22	

** $p<.01$

4) 아동 배경변인에 따른 학교규칙 적응의 차이

<표 IV-11> 아동 배경변인에 따른 학교규칙 적응의 차이

아동 배경변인		빈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성 별	남학생	266	25.67	4.50	t=-1.916
	여학생	283	26.41	4.56	
생활수준	높음	12	23.08	5.70	F=2.630
	보통	456	26.11	4.38	
	낮음	81	26.11	5.12	
어머니의 학력수준	중졸이하	99	25.63	3.79	F=.771
	고졸	376	26.21	4.74	
	대졸이상	74	25.80	4.43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학교규칙 적응이 아동 배경변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차이 검증한 결과는 <표 IV-11>과 같다.

<표 IV-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과 생활수준, 어머니의 학력수준별로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학교규칙 적응에 대해 의미있는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학교규칙 적응은 아동 배경변인별로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가설 2> 의사소통 빈도에 따라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과 그 하위요인인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존중, 순수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IV-12> 의사소통 빈도에 따른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차이

구 분	의사소통 빈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검증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	공감적 이해	1)낮은집단	103	1.786	.681	7.967**	2)와 1)* 3)과 1)**
		2)보통집단	253	2.024	.712		
		3)높은집단	193	2.124	.681		
	무조건적 존중	1)낮은집단	103	1.825	.663	11.340**	2)와 1)** 3)과 1)**
		2)보통집단	253	2.083	.694		
		3)높은집단	193	2.223	.682		
	순수성	1)낮은집단	103	2.039	.685	7.048**	3)과 1)** 3)과 2)*
		2)보통집단	253	2.150	.730		
		3)높은집단	193	2.337	.666		
전 체	1)낮은집단	103	1.913	.612	10.617**	2)와 1)* 3)과 1)** 3)과 2)*	
	2)보통집단	253	2.107	.655			
	3)높은집단	193	2.264	.610			

** p<.01 * p<.05

의사소통 빈도가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차이 검증한 결과는 <표 IV-12>과 같다.

<표 IV-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사소통 빈도에 따른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차이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사소통 빈도에 따른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을 Scheffe' 검증한 결과 $p < .01$ 수준에서 높은집단과 낮은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p < .05$ 수준에서는 보통집단과 낮은집단, 높은집단과 보통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의사소통 빈도가 높을수록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임을 보여준다.

의사소통 빈도에 따른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하위요인인 공감적 이해를 Scheffe' 검증한 결과 $p < .01$ 수준에서 높은집단과 낮은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p < .05$ 수준에서는 보통집단과 낮은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의사소통 빈도가 높을수록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 하위요인인 공감적 이해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임을 보여준다.

의사소통 빈도에 따른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하위요인인 무조건적 존중을 Scheffe' 검증한 결과 $p < .01$ 수준에서 보통집단과 낮은집단, 높은집단과 낮은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의사소통 빈도가 높을수록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 하위요인인 무조건적 존중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임을 보여준다.

의사소통 빈도에 따른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하위요인인 순수성을 Scheffe' 검증한 결과 $p < .01$ 수준에서 높은집단과 낮은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p < .05$ 수준에서 높은집단과 보통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의사소통 빈도가 높을수록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 하위요인인 순수성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임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의사소통 빈도가 높을수록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과 그 하위요인인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존중, 순수성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가설 3> 의사소통 빈도에 따라 학교적응과 그 하위요인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IV-13> 의사소통 빈도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

구 분	의사소통 빈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검증	
학 교 적 응	교사관계	1) 낮은 집단	103	24.61	5.25	20.991**	2)와 1)*
		2) 보통 집단	253	26.36	4.65		3)과 1)**
		3) 높은 집단	193	28.44	5.35		3)과 2)**
	교우관계	1) 낮은 집단	103	26.76	5.70	18.662**	2)와 1)*
		2) 보통 집단	253	28.46	5.07		3)과 1)**
		3) 높은 집단	193	30.49	5.07		3)과 2)**
	학교수업	1) 낮은 집단	103	24.47	4.89	13.534**	2)와 1)*
		2) 보통 집단	253	26.14	5.23		3)과 1)**
		3) 높은 집단	193	27.69	5.25		3)과 2)**
	학교규칙	1) 낮은 집단	103	24.89	4.46	6.696**	
		2) 보통 집단	253	25.90	4.54		
		3) 높은 집단	193	26.86	4.45		3)과 1)**
전 체	1) 낮은 집단	103	100.73	14.50	27.180**	2)와 1)**	
	2) 보통 집단	253	106.86	14.42		3)과 1)**	
	3) 높은 집단	193	113.48	14.84		3)과 2)**	

** p<.01, * p<.05

학교적응과 그 하위요인이 의사소통 빈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차이 검증한 결과는 <표 IV-13>과 같다. <표 IV-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녀의 학교적응과 그 하위요인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적응들은 의사소통 빈도에 따라 p<.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사소통 빈도별 학교적응의 점수 평균들을 Scheffe' 검증한 결과 p<.01 수준에서 보통집단과 낮은집단, 높은 집단과 낮은집단, 높은 집단과 보통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의사소통 빈도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아짐을 보여준다.

의사소통 빈도별 교사관계와 교우관계, 학교수업 적응의 평균을 Scheffe' 검

중한 결과 $p < .01$ 수준에서 의사소통 빈도가 높은집단과 낮은집단, 높은 집단과 보통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p < .05$ 수준에서는 의사소통 빈도가 보통집단과 낮은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의사소통 빈도가 높을수록 교사관계의 적응과 교우관계의 적응, 학교수업의 적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교규칙 적응의 평균을 Scheffe' 검증한 결과 $p < .01$ 수준에서 높은 집단과 낮은집단간에만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의사소통 빈도가 높은집단이 낮은집단에 비해 학교규칙의 적응이 높음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의사소통 빈도가 높을수록 학교적응과 그 하위요인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적응이 높아짐을 보여준다.

<가설 4>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학교적응과 그 하위요인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IV-14>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학교적응 하위요인의 차이

구 분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검증	
학 교 적 응	교사 관계	1)비촉진	83	25.36	5.36	10.662**	3)과 1)**
		2)기본촉진	314	26.39	5.01		3)과 2)**
		3)심화촉진	152	28.28	5.18		
	교우 관계	1)비촉진	83	26.86	5.39	7.795**	2)와 1)*
		2)기본촉진	314	28.99	5.31		3)과 1)**
		3)심화촉진	152	29.66	5.21		
	학교 수업	1)비촉진	83	24.34	4.77	13.828**	2)와 1)*
		2)기본촉진	314	26.15	5.19		3)과 1)**
		3)심화촉진	152	27.95	5.35		3)과 2)**
학교 규칙	1)비촉진	83	24.81	4.02	5.761**		
	2)기본촉진	314	25.97	4.54			
	3)심화촉진	152	26.88	4.66		3)과 1)**	
전 체	1)비촉진	83	101.36	14.13	16.314**	2)와 1)**	
	2)기본촉진	314	107.50	14.86		3)과 1)**	
	3)심화촉진	152	112.78	15.23		3)과 2)**	

** $p < .01$, * $p < .05$

학교적응이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과 그 하위요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차이 검증한 결과는 <표 IV-14>와 같다. <표 IV-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녀의 학교적응과 그 하위요인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적응들은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p<.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별 학교적응의 점수 평균들을 Scheffe' 검증한 결과 $p<.01$ 수준에서 기본적 집단과 비촉진집단, 심화촉진 집단과 비촉진집단, 심화촉진 수준 집단과 기본촉진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 집단일수록 학교적응이 높아짐을 보여준다.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별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교사관계 적응의 점수 평균을 Scheffe' 검증한 결과 $p<.01$ 수준에서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 집단과 비촉진집단, 심화촉진 수준 집단과 기본촉진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 집단일수록 교사관계 적응이 높아짐을 보여준다.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별 교우관계 적응의 점수 평균을 Scheffe' 검증한 결과 $p<.01$ 수준에서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이 기본촉진과 비촉진, 심화촉진과 비촉진 수준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 집단일수록 교우관계 적응이 높아짐을 보여준다.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별 학교수업 적응의 점수 평균을 Scheffe' 검증한 결과 $p<.01$ 수준에서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과 기본촉진, 심화촉진과 비촉진수준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p<.05$ 수준에서 기본촉진과 비촉진 수준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 집단일수록 학교수업 적응이 높아짐을 보여준다.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 집단별 학교규칙 적응의 점수 평균을 Scheffe' 검증한 결과 $p<.01$ 수준에서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과 비촉진 수준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이 비촉진 수준 집단에 비해 심화촉진 수준 집단이 학교규칙 적응이 높음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 집단일수록 학교적응과

그 하위요인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적응이 높아짐을 보여 준다.

4-1. 공감적 이해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IV-15> 공감적 이해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학교적응 하위요인의 차이

구 분	공감적 이해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검증	
학 교 적 응	교사 관계	1)비촉진	132	26.08	5.30	3.453*	3)과 1)**
		2)기본촉진	277	26.62	5.06		
		3)심화촉진	140	27.68	5.28		
	교우 관계	1)비촉진	132	27.52	5.45	7.973**	3)과 1)**
		2)기본촉진	277	28.87	5.36		
		3)심화촉진	140	30.08	5.00		
	학교 수업	1)비촉진	132	24.98	5.21	8.496**	2)와 1)* 3)과 1)**
		2)기본촉진	277	26.42	5.19		
		3)심화촉진	140	27.59	5.29		
	학교 규칙	1)비촉진	132	25.24	4.41	3.405*	3)과 1)*
		2)기본촉진	277	26.12	4.73		
		3)심화촉진	140	26.66	4.18		
전 체	1)비촉진	132	103.82	14.70	10.098**	2)와 1)* 3)과 1)** 3)과 2)*	
	2)기본촉진	277	108.04	15.09			
	3)심화촉진	140	112.01	15.18			

** p<.01, * p<.05

학교적응과 하위요인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적응이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 하위요인인 공감적 이해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차이 검증한 결과는 <표 IV-15>와 같다.

학교적응과 하위요인인 교우관계, 학교수업 적응은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

하위요인인 공감적 이해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p < .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교사관계와 학교규칙 적용은 공감적 이해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p < .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하위요인인 공감적 이해 의사소통 수준별 학교적응의 평균을 Scheffe' 검증한 결과 $p < .01$ 수준에서 심화촉진과 기본촉진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p < .05$ 수준에서는 기본촉진과 비촉진, 심화촉진과 기본촉진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하위요인인 공감적 이해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 촉진 수준 집단일수록 학교적응이 높아짐을 보여준다.

공감적 이해 의사소통 수준별 교사관계와 교우관계 적용의 평균을 Scheffe' 검증한 결과 $p < .01$ 수준에서 심화촉진과 비촉진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규칙 적용의 평균을 Scheffe' 검증한 결과 $p < .05$ 수준에서 심화촉진과 비촉진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공감적 이해 의사소통 수준이 비촉진에 비해 심화촉진 집단이 교사관계와 교우관계, 학교규칙 적용이 높음을 보여준다.

학교수업 적용의 평균을 Scheffe' 검증한 결과 $p < .01$ 수준에서 심화촉진과 비촉진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고 $p < .05$ 수준에서는 기본촉진과 비촉진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공감적 이해 의사소통 수준이 비촉진에 비해 기본촉진과 심화촉진 수준 집단이 학교수업 적용이 높음을 보여준다.

종합해 보면 어머니의 공감적 이해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인 경우 학교적응 뿐만 아니라 그 하위요인인 교사관계와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적용도 높아짐을 보여준다.

4-2. 무조건적 존중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IV-16> 무조건적 존중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학교적응 하위요인의 차이

		무조건적 존중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검증
학 교 적 응	교사 관계	1)비촉진	132	25.88	5.15	10.801**	3)과 1)** 3)과 2)**
		2)기본촉진	277	26.22	5.04		
		3)심화촉진	140	28.34	5.19		
	교우 관계	1)비촉진	132	27.82	5.55	4.162*	3)과 1)**
		2)기본촉진	277	28.78	5.23		
		3)심화촉진	140	29.71	5.35		
	학교 수업	1)비촉진	132	24.91	4.72	19.485**	3)과 1)** 3)과 2)**
		2)기본촉진	277	25.78	5.18		
		3)심화촉진	140	28.46	5.29		
	학교 규칙	1)비촉진적	132	25.11	4.29	12.220**	3)과 1)** 3)과 2)**
		2)기본촉진	277	25.61	4.39		
		3)심화촉진	140	27.49	4.67		
	전 체	1)비촉진	112	103.71	14.91	19.383**	3)과 1)** 3)과 2)**
		2)기본촉진	279	106.39	14.25		
		3)심화촉진	158	114.00	15.59		

** p<.01, * p<.05

학교적응과 하위요인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적응이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 하위요인인 무조건적 존중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차이 검증한 결과는 <표 IV-16>과 같다.

학교적응과 하위요인인 교사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적응은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 하위요인인 무조건적 존중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p<.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교우관계 적응은 p<.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하위요인인 무조건적 존중 의사소통 수준별 학교적응과 하위요인인 교사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적응의 평균을 Scheffe' 검증한 결과 $p < .01$ 수준에서 심화촉진과 비촉진집단, 심화촉진과 기본촉진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무조건적 존중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인 경우 비촉진과 기본촉진 집단에 비해 학교적응과 교사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적응이 높음을 보여준다.

교우관계 적응의 평균을 Scheffe' 검증한 결과 $p < .01$ 수준에서 심화촉진과 비촉진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무조건적 존중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인 경우 비촉진집단에 비해 교우관계 적응이 높음을 보여준다.

종합해 보면 어머니의 무조건적 존중이 심화촉진 수준인 경우 학교적응뿐만 아니라 그 하위요인인 교사관계와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적응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4-2. 순수성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학교적응과 하위요인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적응이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 하위요인인 순수성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차이 검증한 결과는 <표 IV-17>과 같다.

학교적응은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 하위요인인 순수성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p < .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학교적응 하위요인인 학교수업 적응은 $p < .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교사관계와 교우관계, 학교규칙 적응은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하위요인인 순수성 의사소통 수준별 학교적응의 평균을 Scheffe' 검증한 결과 $p < .05$ 수준에서 심화촉진과 비촉진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순수성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인 경우 비촉진 집단에 비해 학교적응이 높음을 보여준다.

순수성 의사소통 수준별 학교수업 적응의 평균을 Scheffe' 검증한 결과 $p<.01$ 수준에서 심화촉진과 비촉진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고 $p<.05$ 수준에서는 심화촉진과 기본촉진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다.

<표 IV-17> 순수성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학교적응 하위요인의 차이

		순수성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검증
학 교 적 응	교사 관계	1)비촉진	94	26.28	4.76	2.112	
		2)기본촉진	254	26.47	5.15		
		3)심화촉진	201	27.35	5.42		
	교우 관계	1)비촉진	94	28.34	5.51	0.518	
		2)기본촉진	254	28.95	5.37		
		3)심화촉진	201	28.97	5.28		
	학교 수업	1)비촉진	94	25.38	5.11	6.433**	3)과 1)** 3)과 2)*
		2)기본촉진	254	25.93	4.98		
		3)심화촉진	201	27.40	5.61		
	학교 규칙	1)비촉진	94	25.16	4.40	2.203	
		2)기본촉진	254	26.19	4.43		
		3)심화촉진	201	26.28	4.71		
	전 체	1)비촉진	94	105.16	14.09	3.506*	3)과 1)*
		2)기본촉진	254	107.54	15.00		
		3)심화촉진	201	110.01	15.92		

** $p<.01$, * $p<.05$

종합해 보면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하위요인인 순수성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인 경우 학교적응과 하위요인인 학교수업 적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가설 5> 아동 배경변인과 의사소통 빈도,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 학교적응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표 IV-18> 아동 배경변인들과 의사소통, 학교적응과의 상관관계

구 분		아동 배경변인		
		성 별	생활정도	어머니의 교육수준
의사소통 빈도		.242**	.160**	.087*
촉진적 의사 소통 수준	공감적 이해	.036	.125**	.043
	무조건적 존중	.138**	.095*	.145**
	순 수 성	.092*	.076	.092*
	전 체	.105*	.096*	.102*
학교 적응	교사관계	.185**	.040	.038
	교우관계	.048	.131**	.052
	학교수업	.033	.144**	.125**
	학교규칙	.082	.042	.017
	전 체	.116**	.122**	.080

** p<.01, * p<.05

아동 배경변인과 의사소통의 빈도,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단순상관을 구한 결과는 <표 IV-18>과 같다.

아동 배경변인과 의사소통 빈도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성별과 생활정도, 어머니의 교육수준에서 각각 .242, .160, .087의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의사소통 빈도가 높고, 생활정도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빈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과의 상관관계에서도 성별과 생활정도, 어머니의 교육수준에서 각각 .105, .096, .102의 정적상관을 보였고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하위요인인 공감적 이해 의사소통 수준과의 상관관계는 생활정도에서 .125의

정적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무조건적 존중 의사소통 수준과의 상관관계는 성별과 생활정도, 어머니의 교육수준에서 각각 .138, .095, .145의 정적상관을 보였고 순수성 의사소통 수준과의 상관관계는 성별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에서 각각 .092의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이며, 생활정도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무조건적 존중하는 의사소통 수준과 순수성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이며, 생활정도가 높을수록 공감적 이해하는 의사소통 수준과 무조건적 존중하는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무조건적 존중하는 의사소통 수준과 순수성이 심화촉진 수준임을 보여준다.

학교적응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성별과 생활정도에서 각각 .116, .122의 정적상관을 보였고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교사관계 적응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성별에서 .185의 정적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교우관계 적응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생활정도에서 .131의 정적상관을 보였고 학교수업 적응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생활정도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에서 각각 .144, .125의 정적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학교규칙 적응과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교적응이 높으며, 생활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교사관계 적응이 높고,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교우관계 적응과 학교수업 적응이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수업 적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의사소통 빈도가 높고, 무조건적 존중하는 의사소통 수준과 순수성이 심화촉진 수준임을 보여준다. 또한 학교적응이 높고 교사관계 적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빈도가 높으며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이 심

화촉진수준이고 공감적 이해와 무조건적 존중하는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임을 보여준다. 또한 학교적응이 높으며 교우관계 적응과 학교수업 적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빈도가 높으며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이고 무조건적 존중하는 의사소통 수준과 순수성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임을 보여준다. 또한 학교수업 적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5-1. 의사소통 빈도와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 학교적응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표 IV-19> 의사소통 빈도와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 학교적응과의 상관관계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				학교적응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존중	순수성	전 체	교사 관계	교우 관계	학교 수업	학교 규칙	전 체
의사소통 빈도	.162**	.195**	.157**	.193**	.267**	.253**	.217*	.155**	.301**

** p<.01, * p<.05

의사소통 빈도와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단순상관을 구한 결과는<표 IV-19>와 같다.

의사소통 빈도와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과 그 하위요인인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존중, 순수성 의사소통 수준에서 각각 .193, .162, .195, .157의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의사소통 빈도가 높을수록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과 공감적 이해하는 의사소통 수준, 무조건적 존중하는 의사소통 수준, 순수성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수준임을 보여준다.

의사소통 빈도와 학교적응과의 상관관계에서는 학교적응과 그 하위요인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적응에서 각각 .301, .267, .253, .217, .155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의사소통 빈도가 높을수록 학교적응과 교사관계 적응, 교우관계 적응, 학교수업 적응, 학교규칙 적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의사소통 빈도가 높을수록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과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존중, 순수성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이며 학교적응과 교사관계 적응, 교우관계 적응, 학교수업 적응, 학교규칙 적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5-2.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과 학교적응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표 IV-20>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과 학교적응과의 상관관계

구 분		학교적응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전 체
촉진적 의사 소통	공감적 이해	.109*	.168**	.173**	.109*	.189**
	무조건적 존중	.176**	.123**	.244**	.193**	.245**
	순수성	.082	.035	.146**	.074	.113**
	전 체	.190**	.153**	.220**	.143**	.237**

** p<.01, * p<.05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과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한 단순상관의 결과는 <표 IV-20>과 같다.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과 학교적응과의 상관관계에서는 학교적응과 그 하위요인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적응에서 각각 .237, .190, .153, .220, .143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일수록 학교적응과 교사관계 적응, 교우관계 적응, 학교수업 적응, 학교규칙 적응이 높음을 보여준다.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하위요인인 공감적 이해 의사소통 수준과 학교적응과의 상관관계에서도 학교적응과 그 하위요인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적응에서 각각 .189, .109, .168, .173, .109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하위요인인 공감적 이해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일수록 학교적응과 교사관계 적응, 교우관계 적응, 학교수업 적응, 학교규칙 적응이 높음을 보여준다.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하위요인인 무조건적 존중 의사소통 수준과 학교적응과의 상관관계에서도 학교적응과 그 하위요인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적응에서 각각 .245, .176, .123, .244, .193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하위요인인 무조건적 존중하는 의사소통 수준일수록 학교적응과 교사관계 적응, 교우관계 적응, 학교수업 적응, 학교규칙 적응이 높음을 보여준다.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하위요인인 순수성 의사소통 수준과 학교적응과의 상관관계에서는 학교적응과 그 하위요인인 학교수업 적응에서 각각 .113, .146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하위요인인 순수한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일수록 학교적응과 학교수업 적응이 높음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과 그 하위요인인 공감적 이해 의사소통 수준과 무조건적 존중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일수록 학교적응과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적응이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순수한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일수록 학교적응과 학교수업 적응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는 어머니-자녀간 촉진적 의사소통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통하여 어머니-자녀사이에 이루어지는 촉진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빈도는 어떠한가?

둘째, 어머니와의 촉진적 의사소통 하위요인(공감적 이해, 존중, 순순성)수준은 어떠한가?

셋째, 아동의 학교적응 하위요인(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별 수준은 어떠한가?

넷째,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빈도와 아동의 학교적응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다섯째,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과 아동의 학교적응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여섯째,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학교적응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제주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54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측정도구로는 의사소통 빈도 측정을 위해 Demo, Small과 Savin-Williams(1987)가 제작한 것을 김용구(1992)가 아동에 알맞게 수정하여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고, 촉진적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마정건(1988)이 제작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검사'를 김용구(1992)가 아동에 알맞게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학교

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호권의 '표준생활 검사지'와 유상철(1982)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태도'를 참고로 임정순(1993)이 아동에 알맞게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상관관계 및 일원변량분석과 t검증을 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의사소통 빈도

첫째, 아동 배경변인에 따른 의사소통 빈도는 성별($t=5.844, p<.01$)과 생활정도별($F=7.305, p<.01$)로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어머니의 학력 수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의사소통 빈도가 높고 생활정도에서는 생활정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의사소통 빈도에 따른 촉진적 의사소통의 하위요인별 수준과의 차이 검증에서 촉진적 의사소통($F=10.617, p<.01$)과 그 하위요인인 공감적 이해($F=7.967, p<.01$), 무조건적 존중($F=11.340, p<.01$), 순수성($F=7.048,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의사소통 빈도가 높을 수록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과 그 하위요인인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존중, 순수성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의사소통 빈도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에서도 학교적응($F=27.180, p<.01$)과 그 하위요인 교사관계($F=20.991, p<.01$), 교우관계($F=18.662, p<.01$), 학교수업($F=13.534, p<.01$), 학교규칙($F=6.696,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의사소통 빈도별 학교적응과 그 하위요인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모두 의사소통 빈도가 높을수록 적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2)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

(1) 아동 배경변인

첫째, 학생배경변인에 따른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은 성별($t=2.461, p<.05$)과 어머니의 학력수준별($F=3.114, p<.05$)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생활정도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성별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이 높고 어머니의 학력수준별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둘째, 학생배경변인에 따른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하위요인인 공감적 이해 의사소통 수준은 생활정도별($F=4.446, p<.05$)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성별과 어머니의 학력수준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생활정도별로 생활정도가 높을수록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하위요인인 공감적 이해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셋째, 학생배경변인에 따른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하위요인인 무조건적 존중 의사소통 수준은 성별($t=-3.249, p<.01$)과 어머니의 학력수준별($F=6.073, p<.01$), 생활정도별($F=3.046, p<.05$)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생활정도와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무조건적 존중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넷째, 학생배경변인에 따른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하위요인인 순수성 의사소통 수준은 성별($t=-2.162, p<.05$)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생활정도와 어머니의 학력수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성별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하위요인인 순수성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과 학교적응

첫째, 학교적응($F=16.314, p<.01$)과 그 하위요인인 교사관계($F=10.662, p<.01$), 교우관계($F=7.795, p<.01$), 학교수업($F=13.828, p<.01$), 학교규칙($F=5.761, p<.01$) 적응에 따른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촉진적 의

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 집단일수록 학교적응과 그 하위요인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적응이 높아짐을 보여준다.

둘째, 학교적응($F=10.098$, $p<.01$)과 그 하위요인인 교우관계($F=7.973$, $p<.01$), 학교수업($F=8.496$, $p<.01$)과 교사관계($F=3.453$, $p<.05$), 학교규칙 적응($F=3.405$, $p<.05$)에 따른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하위요인인 공감적 이해 의사소통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머니의 공감적 이해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인 경우 학교적응뿐만 아니라 그 하위요인인 교사관계와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적응도 높아짐을 보여준다.

셋째, 학교적응($F=19.383$, $p<.01$)과 그 하위요인인 학교수업($F=19.485$, $p<.01$), 교사관계($F=10.801$, $p<.01$), 학교규칙($F=12.220$, $p<.01$)과 교우관계($F=4.162$, $p<.05$) 적응에 따른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하위요인인 무조건적 존중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머니의 무조건적 존중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인 경우 학교적응뿐만 아니라 그 하위요인인 교사관계와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적응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넷째, 학교적응($F=3.506$, $p<.05$)과 학교수업 적응($F=6.433$, $p<.01$)에 따른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하위요인인 순수성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규칙 적응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하위요인인 순수성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인 경우 학교적응과 하위요인인 학교수업 적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3) 학교적응

첫째, 학생배경변인에 따른 학교적응은 성별($t=-2.727$, $p<.01$)과 생활수준($F=5.811$, $p<.01$), 학력수준별($F=4.661$, $p<.05$)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성별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으며 어머니가 고졸의 학력수준일 경우 자녀의 학교적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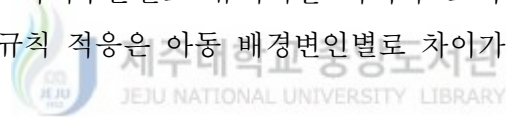
둘째, 학생배경변인에 따른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교사관계 적응은 성별($t=-4.401$, $p<.01$)과 생활수준별로($F=3.404$, $p<.01$)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어

머니의 교육수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성별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생활수준별로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교사관계 적응이 높음을 보여준다.

셋째, 학생배경변인에 따른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교우관계 적응은 생활수준($F=4.791, p<.01$)과 어머니의 학력수준별로($F=5.133, p<.01$)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교우관계 적응이 높고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고졸인 경우 자녀의 교우관계 적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학생배경변인에 따른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학교수업 적응은 생활수준($F=6.257, p<.01$)과 어머니의 학력수준별로($F=5.417, p<.01$)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생활수준과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수업 적응이 높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학생배경변인에 따른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학교규칙 적응은 생활수준과 어머니의 학력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학교규칙 적응은 아동 배경변인별로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4) 상관관계

(1) 아동 배경변인

첫째, 아동 배경변인과 의사소통의 빈도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성별과 생활정도, 어머니의 교육수준에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생활정도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빈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아동 배경변인과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성별과 생활정도, 어머니의 교육수준에서 정적상관을 보였고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하위요인인 공감적 이해 의사소통 수준과의 상관관계는 생활정도에서, 그리고 무조건적 존중 의사소통 수준과의 상관관계는 성별과 생활정도, 어머니의 교육수준에서, 순수성 의사소통 수준과의 상관관계는 성별과 어머니의 교육수준

에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이며, 생활정도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무조건적 존중하는 의사소통 수준과 순수성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이며, 생활정도가 높을수록 공감적 이해하는 의사소통 수준과 무조건적 존중하는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무조건적 존중하는 의사소통 수준과 순수성이 심화촉진 수준임을 보여준다.

둘째, 아동 배경변인과 학교적응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성별과 생활정도에서 정적상관을 보였고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교사관계 적응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성별에서, 교우관계 적응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생활정도에서, 학교수업 적응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생활정도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에서 정적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학교규칙 적응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교적응이 높으며, 생활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음을 보여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교사관계 적응이 높고,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교우관계 적응과 학교수업 적응이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수업 적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 의사소통 빈도

첫째, 의사소통 빈도와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과 그 하위요인인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존중, 순수성 의사소통 수준에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의사소통 빈도가 높을수록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과 공감적 이해하는 의사소통 수준, 무조건적 존중하는 의사소통 수준, 순수성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임을 보여준다.

둘째, 의사소통 빈도와 학교적응과의 상관관계에서는 학교적응과 그 하위요인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적응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의사소통 빈도가 높을수록 학교적응과 교사관계 적응, 교우관계 적

응, 학교수업 적응, 학교규칙 적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3) 촉진적 의사소통

첫째,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과 학교적응과의 상관관계에서는 학교적응과 그 하위요인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적응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일수록 학교적응과 교사관계 적응, 교우관계 적응, 학교수업 적응, 학교규칙 적응이 높음을 보여준다.

둘째,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하위요인인 공감적 이해 의사소통 수준과 학교적응과의 상관관계에서도 학교적응과 그 하위요인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적응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하위요인인 공감적 이해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일수록 학교적응과 교사관계 적응, 교우관계 적응, 학교수업 적응, 학교규칙 적응이 높음을 보여준다.

셋째,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하위요인인 무조건적 존중 의사소통 수준과 학교 적응과의 상관관계에서도 학교적응과 그 하위요인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적응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하위요인인 무조건적 존중하는 의사소통 수준일수록 학교적응과 교사관계 적응, 교우관계 적응, 학교수업 적응, 학교규칙 적응이 높음을 보여준다.

넷째,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하위요인인 순수성 의사소통 수준과 학교적응과의 상관관계에서는 학교적응과 그 하위요인인 학교수업 적응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의 하위요인인 순수한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일수록 학교적응과 학교수업 적응이 높음을 보여준다.

2.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했던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빈도는 어떠한가에 대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의사소통 빈도가 높고 생활정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빈도가 높다.

둘째, 어머니와의 촉진적 의사소통 하위요인(공감적 이해, 존중, 순수성)별 수준은 어떠한가에 대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이다.

공감적 이해 의사소통 수준은 생활정도가 높을수록 심화촉진 수준이고 무조건적 존중 의사소통 수준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생활정도와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심화촉진 수준이다. 그리고 순수성 의사소통 수준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심화촉진 수준이다.

셋째, 아동의 학교적응 하위요인(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별 수준은 어떠한가에 대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으며 어머니가 고졸의 학력수준일 경우 자녀의 학교적응이 높다.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교사관계 적응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생활수준별로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교사관계 적응이 높다.

그리고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고졸이고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우관계 적응이 높으며 학교수업 적응은 생활수준과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수업 적응이 높다. 그러나 학교규칙 적응은 아동 배경변인별로 차이가 없다.

넷째, 어머니의 의사소통 빈도와 아동의 학교적응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의사소통 빈도별 학교적응과 그 하위요인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모두 의사소통 빈도가 높을수록 적응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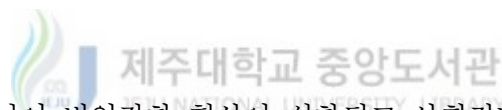
다섯째, 어머니와의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과 아동의 학교적응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 집단일수록 학교적응과 그 하위요인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적응이 높

아지며 어머니의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존중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인 경우 학교적응뿐만 아니라 그 하위요인인 교사관계와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적응도 높다. 순수성 의사소통 수준이 심화촉진 수준인 경우 학교적응과 하위요인인 학교수업 적응이 높다.

여섯째,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학교적응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과 학교적응간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촉진적 의사소통이 심화촉진 수준일수록 학교적응과 교사관계 적응, 교우관계 적응, 학교수업 적응, 학교규칙 적응이 높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학교적응이 가변요인인 의사소통의 빈도 및 촉진적 의사소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녀와의 의사소통 빈도를 높이고, 촉진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3. 제언



학교교육은 나날이 비인간화 현상이 심화되고 사회전반에 인간관계가 표피화 및 기능화 되고, 가정교육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어머니-자녀간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인간의 성장 발달과 문제해결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인간주의적 교육의 관점에서 가정교육의 실체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어머니-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의사소통에 관한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며 본 연구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촉진적 의사소통의 기술은 생득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학습과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정, 학교 등에서 촉진적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훈련과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교육에서 교사-아동간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학교적응이 어떠한가를 연구함으로써 교육적 함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촉진적 의사소통 도구의 타당화 연구가 필요하다

고, 아동의 지각에 초점을 두고 측정되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실제 어머니-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설명하는데 왜곡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어머니-자녀를 동시에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 전개되는 상황의 참여관찰과 면접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학사편찬위원회(1965). 「교육학대사전」, 서울 : 대한교육연합회
- 고명규(1991). SKINNER와 ROGERS의 상담이론 분석을 통한 절충적 상담모형 탐색,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미경(1993).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자녀의 자기표현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호(1996).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자녀의 사회적 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구(199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학구적 자아개념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한국 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1990). 부부관계,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족기능과 청소년 자녀 비행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희(1993). 어머니-자녀의 의사소통과 자녀의 성격 특성간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옥(1990). 10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사소통 개방성과 그 요인 분석,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희(1987). 어머니와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 형태와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분(1994). 어머니-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1996). 서울지역 중학교 학생의 가정환경과 학교적응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충국(1995). 국민학교 아동의 문제행동과 환경요인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마정건(1988).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인성특성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선모(1977). “학생의 배경적 특성과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학
생지도연구」 제4집
- 문선모(1984). “중학생의 배경적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 「경남대학교논문집」
(사회계편), 296~301.
- 민영순(1979). 「교육심리학」, 숙명여대출판부.
- 민하영(1991). 청소년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가정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혜영(1990). Circumplex Model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연세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박연호(1981). 「인간관계론」, 서울, 박영사.
- 백종흠(1984).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교적응과의 관계, 경상대학교 교
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용운(1979). “문제행동의 원인분석과 그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진주교육
대학논문집」.
- 송례자(1990). 국민학교 생활부적응아가 지각한 학교풍토에 관한 연구, 건국대
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규복(1986). 중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태도 분석,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 안영복(1984). 적응 및 부적응 행동의 특성과 관계 변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주(1984). 「신가족관계학」, 교문사.
- 유상철(1982).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태도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로 외(1979). 「성격과 행동의 지도」, 서울 : 중앙적성 연구소.
- 이연숙(1990). 가족체제 및 어머니-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 적응의 관계, 전북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순(1993). 아동의 의존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 장대운 외(1985). 「현대교육심리」, 서울 : 정민사.
- 장호성(1987). 자아개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명희(1987).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수준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연구,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경(1994).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상지대학교 논문집」, 제 15권.
- 차배근(1984). 「커뮤니케이션 개론(상)」, 서울, 세영사.
- 최선남(1990). 청소년의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수준과 갈등표출 방법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상순(1996). 지각된 학교풍토와 학교생활적응 학업성취, 학교폭력, 출석율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함병미(1990).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학업성취와의 관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기선(1984). 「커뮤니케이션론」, 서울, 나남.
- 황동연(1992). 국민학교 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아개념의 관계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dams, B. N.(1980). The Family, Chicago :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 Allport, G. S.(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 Holt Runehart and Winston, 135.
- Beakel, N.(1971). Parental verbal and nonverbal communication and psychopathology.
- Barnes, Howard & Olson, D. H.(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 Bower. E. M.(1970). Early Identification of Emotionally Disturbed Childern School, Springfield : Charles C. Thamas.

- Clarke, R. R.(1977). Difference In Self-Concept among Students Identified as Emotional Disturbed EMR and Normal, Unpublished Dr Dissertation Jechia University.
- Carkhuff, R. R. & Berenson, B. G.(1967). Beyond Counseling and Therapy,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 Carkhuff, R. R.(1969). Helping & Human Relations, Vol I.II Holt, Rinehart & Winston.
- Datta, L., Schaefer, E., & Davis, M.(1968). "Sex and Scholastic aptitude as variables in teachers' ratings of the adjustment and classroom behavior of Nrgro and other seventh- grade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4_101.
- Demo, D. H. Small, S. A., & Savin-Williams, R. C.(1987). Family relation and a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and their prents.
- Foley, V. D(1974). An introduction to family theory, New York : Grune & Stratton.
- Gates, Arthur I.(1950). Educational psychology, New York : Macmillan Co.
- Galvin, K. M. & Brommel, B. J.(1986). Family Communication-Cohesion and Change, 2nd ed. Illinois : Scott, Fornesman and Co.
- Glauser, M.(1979). "Patterns of communication in the homes of disturbed childre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Central States Speech Association, St. Louis, Missouri. April 5_7.
- Gordon, T.(1970). P.E.T.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The tested new way to raise responsible children.
- Gross, I. H., Crandall, E. W., Knoll, M. M.(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5th ed.,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 Hall.
- Hinshow, R. P.(1962). The Concept of Adjustment and Problem of Norm, Psychological, 285_290.

- Lazarus, R. S.(1969). Patterns of Adjustment and Human Effectiveness. New York : MacGrow Hill Book Co. 17.
- Patterson, C. H.(1974). Relationship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Anderson, S., Douds, J., & Carkhuff, R. R.(1967). The Effects of confrontation by High and Low Function Therapists. Unpublished research,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Rogers, C. R.(1951). Client- Centered Therapy. Boston : Houghton Mifflin Co.
- _____ (1961). On Becoming a Person. Boston : Houghton Mifflin Co.
- _____ (1969).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 The core of Guidance. Harvard Educational Review, 32, 416~429.
- Schumm, Walter R.(1979). The Measurement of Marital communication, Purdue University Ph. D. Thesis.
- Shaffer, L. F.(1956). The Psychology of Adjustment. Boston : Houghton Mifflin.
- Symonds, P. M.(1946). The Dyanmics Ajustment. N. Y : Appleton century crofts. 4.
- Truax, C. B & Carkhuff, R. R.(1967). Toward Effective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Chicago : Aldine Publishing Company.
- Truax, C. B & Mithchell, K. M.(1971). Research on certain therapist Interpersonal skills in relation to process and outcome, In Bergin, A. E. & Garfield, S. L.(E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 An Empirical analysis. New York : Wiley, 299~344.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Facilitative Communication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School Adjustment

Kim, Hyun- Suk

Counse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Tae- Soo

This study is made on the purpose of furnishing fundamental data to create circumstances for e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mothers and children by showing the relationship among children's environmental variables, frequency of mothers-children communication, facilitative communication and th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Here follow the concrete questions of the study;

First, how does the frequency of communication between mothers and children differ according to children's environmental variables?

Second, how do the sub-variables of mothers' facilitative communication with children (empathic understanding, unconditional positive regard, genuineness) differ according to children's environmental variable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9.

Third, how do the sub-variables of children's school adjustment (relationship with teachers and friends, school learning and obedience of school rules) differ according to children's environmental variables?

Fourth, how does school adjustment differ according to frequency of mothers' communication with children?

Fifth, how does school adjustment differ according to mothers' facilitative communication?

Sixth, how does children's school adjustment correlate with mothers' facilitative communication?

The subject of this study were 585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Che-ju as samples and analyzed 549 of them in the end.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statistical methods of one-way analysis of variance t-examination, Pearson's Correlation by SPSS/PC+

The results from the samples are;

First, female children and those whose level of life is higher show higher frequency of communication with mothers.

Second, as to the sub-variables of facilitative communication ; those whose level of life is higher belong to the higher level of facilitative communication in empathic understanding. In unconditional positive regard, female children belong to the higher level of facilitative communication than male children. And those whose level of life is higher and whose mothers got higher education belong to the higher level of facilitative communication in unconditional positive regard. Female children belong to the higher level of facilitative communication in genuineness than male children.

Third, as to the sub-variables of school adjustment; female children and

those whose level of life is higher show better adjustment to relationship with teachers. In case that children's level of life is higher and their mothers graduated from the high school. The children are better in relationship with friends. Children whose level of life is higher and whose mothers got higher education show better adjustment to school learning. And obedience of school rules differs little according to the children's environmental variables.

Forth, school adjustment made up of the sub-variables of relationship with teachers and friends, school learning, and obedience of school rules, is higher when communication frequency is higher.

Fifth, the children who belong to the higher level of facilitative communication in empathic understanding, unconditional positive regard, and genuineness show higher school adjustment together with its sub-variables of relationship with teachers and friends, school learning, and obedience of school rules.

Sixth, there a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mothers' facilitative communication with children and th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When facilitative communication and its sub-variables (empathic understanding, unconditional positive regard, genuineness) are higher, school adjustment and its sub-variables (relationship with teachers and friends, school learning and obedience of school rules) are also higher. Those who belong to the higher level of genuineness adjust to school learning better.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re a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school adjustment and the higher level of facilitative communication.

부 록

<부록 1> : 촉진적 의사소통 척도의 하위변인별 수준 및 문항별 수준 표시.

<부록 2> : 하위변인별 문항 배열 및 항목별 수준표.

<부록 3> : 어머니-자녀의 촉진적 의사소통에 관한 설문지

<부록 4> : 학교적응에 관한 설문지



< 부록 1 >

촉진적 의사소통 척도의 하위변인별 수준 및 문항별 수준 표시

1. 공감적 이해

- 수준 1 : 자녀의 언어적, 비언어 표현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명백하게 표현되는 자녀의 표면적 감정, 사고조차 정확히 지각하지 못한다.
- 수준 2 : 자녀의 표면적 감정, 사고를 지각하여 자신의 개념 틀에 의존한다.
- 수준 3 : 자녀의 표면적 감정 사고를 정확히 지각하여 자신의 개념 틀에 의한 왜곡없이 의사소통 한다.
- 수준 4 : 자녀의 내면적 감정, 사고를 지각하여 이를 자신의 개념 틀에 의한 왜곡없이 의사소통 한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녀의 내면적 감정, 사고를 충분히 표현하지는 않는다.
- 수준 5 : 자녀의 내면적 감정, 사고를 정확히 지각하여 이를 왜곡 없이 충분히 표현하여 자녀의 깊은 수준의 자기 탐색을 촉진한다.

2. 존중

- 수준 1 : 자녀의 감정, 경험, 잠재능력을 전적으로 무시한다.
- 수준 2 : 자녀의 감정, 경험, 잠재능력을 거의 존중하지 않는다. 자녀의 감정에 인습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거의 무시한다.
- 수준 3 : 자녀의 감정, 경험, 잠재능력에 대하여 기본적인 존중을 표현한다.
- 수준 4 : 자녀의 감정, 경험, 잠재능력에 대하여 깊은 존중과 긍정적 관심을 표현한다.
- 수준 5 : 자녀의 감정, 경험, 잠재능력에 대하여 대단히 깊은 존중과 관심을 표현하며, 인간적 가치에 몰입되어 의사소통 한다.

3. 순수성

- 수준 1 : 어머니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명백히 불일치 되는 언어적 표현을 한다.
- 수준 2 : 어머니는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진실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의례적이고 관행적인 방식을 표현한다.
- 수준 3 : 어머니의 감정과 언어적 표현이 불일치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진실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아니다.
- 수준 4 : 긍정적 감정이나 부정적 감정을 솔직하고도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자녀와 의 인간관계 발전이나 탐색의 기초를 활용한다.
- 수준 5 : 어머니는 긍정적 감정이나 부정적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건설적이고 교육적인 방식으로 표현한다.

<부록 2>

어머니의 의사소통 검사의 하위 요인별
문항 배열 및 항목별 수준표

의사소통변인	문항	답지번호				
		1	2	3	4	5
공감적 이해	1	5	1	3	2	4
	4	3	2	5	4	1
	7	1	4	2	5	3
	10	2	5	1	3	4
	13	5	1	3	2	4
	16	3	2	5	4	1
	19	2	5	1	3	4
존중	2	1	5	3	4	2
	5	2	5	1	3	4
	8	5	1	3	2	4
	11	3	2	5	4	1
	14	2	5	1	3	4
	17	4	2	1	3	5
	20	1	4	2	5	3
순수성	3	4	2	1	3	5
	6	4	2	1	3	5
	9	1	4	2	5	3
	12	4	2	1	3	5
	15	1	4	2	5	3
	18	4	2	1	3	5
	21	5	1	3	2	4

< 부록 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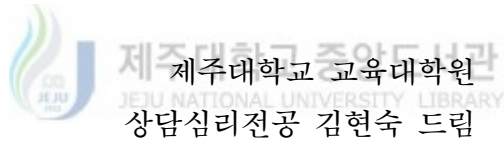
※ 어머니-자녀의 촉진적 의사소통에 관한 설문지

어린이 여러분! 이 질문지는 평소 여러분들과 어머니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학교생활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지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므로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각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번호를 골라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질문지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999년. 3월.



※ 해당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1. 학생의 성별은? 1) 남자 () 2) 여자 ()
2. 학생의 가정 생활의 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높음 () 2) 보통 () 3) 낮음 ()
3. 학생의 어머니의 학력은?

구 분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어머니의 학력						

구 분	1달에 1번도 안 됨	1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하루에 1번이상
4. 자신의 걱정이나 어려움에 관해 여러분의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정도는?				
5. 자신의 학교 생활에 관해 어머니 와 이야기하는 정도는?				
6. 자신의 취미(흥미)에 관해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정도는?				
7. 자신의 친구에 관해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정도는?				
8. 자신의 성격에 관해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정도는?				

※ 만약 여러분이 각 문항의 □안에 제시된 내용과 같은 이야기를 어머니
께 한다면 어머니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각 문항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예로서 다섯 개씩 제시되어 있습니다.
평소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과 가장 가깝다
고 생각되는 것 하나를 골라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 주세요.

1. 엄마! 성적표 여기 있어요. 성적이 너무 떨어져서 큰일났어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도 그래요.

- ① 이번 학기는 성적을 올리려고 열심히 했는데도 떨어졌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되겠구나.
- ② 이것도 공부라고 했니?
- ③ 속이 상한 모양이구나. 성적이 떨어졌으니.
- ④ 그래도 걱정은 되나보지? 이제와서 걱정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니?
- ⑤ 열심히 했는데도 도리어 성적이 떨어졌으니 실망이 크겠구나.

2. 날씨가 더워서 짜증만 나고 공부가 잘 안돼요. 더 열심히 해야 할 텐데요.

- ① 넌 끈기가 부족해서 걱정이야.
- ②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쉬어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아.
- ③ 넌 핑계도 많다. 공부하는데 날씨가 무슨 상관이나?
- ④ 넌 인내심이 강하니까 그래도 잘 참고 공부할 거라고 믿어.
- ⑤ 그래, 더운데도 공부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는구나.

3. 엄마! 돈 좀 주세요. 매일 돈을 달라고 하니까 짜증나시죠?

- ① 자꾸 돈을 달라니까 왜 짜증이 안나겠니?
- ② 학생이 돈을 그렇게 헤프게 쓰면 못 써.
- ③ 넌 맨날 돈 타낼 궁리만 하니?
- ④ 짜증이랄 것까지 있니? 네가 돈을 좀 헤프게 쓴다는 말이지.
- ⑤ 네가 돈을 너무 함부로 쓰는 것 같아 걱정이 된다.

4. 공부만 하려면 잡념이 들어요. 시험은 가까워 오는데 큰일났어요.

- ① 시험은 얼마 안 남았는데 공부가 안돼서 걱정이겠구나.
- ② 공부가 안 된단 말이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봐.
- ③ 이렇게 중요한 때에 집중이 잘 안되니 속이 상하겠구나.
- ④ 하려고 해도 잘 안되니 얼마나 답답하겠니?
- ⑤ 공부가 하기 싫으니 잡념이 들지. 넌 어째 그 모양이냐?

5. 이번달 시험 성적이 저번달 성적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큰일이에요

- ① 열심히 해야지. 성적이 그렇게 쉽게 올라가니?
- ②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인생에는 공부 말고도 중요한 게 많아.
- ③ 너처럼 해 가지고 성적이 올라갈 턱이 있니?
- ④ 넌 노력을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좀더 열심히 하지 그랬니?
- ⑤ 성적이 내려갈 때도 있는 거야. 앞으로 잘 하면 돼.

6. 엄마, 죄송해요. 방 청소를 해놓지 않아서...

- ① 공부도 해야겠지만 덜 바쁠 땐 엄마 생각도 해줘야지.
- ② 네가 할 일은 알아서 해야지.
- ③ 언제는 네가 방 청소 한 적 있니?
- ④ 청소를 했더라면 엄마 기분이 얼마나 좋겠니?
- ⑤ 그래, 엄마 마음이 좀 섭섭하구나. 하지만, 대신 넌 공부를 잘해야 돼.

7. 맨날 공부 공부! 잔소리 좀 그만 하세요. 공부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 ① 뭐! 네가 알아서 한다고? 알아서 한다는게 겨우 그거냐?
- ② 다 알아서 할텐데 엄마가 참견하니까 오히려 더 하기 싫어지는 모양이지?
- ③ 너도 지겹겠지만 내가 말 안할 수 있겠니?
- ④ 네게 모든 걸 믿고 맡겨 두면 더 잘 할 수 있단 말이지?
- ⑤ 잔소리를 들으니깐 기분이 나쁜가 보구나.

8. 엄마! 요즘 학원다니랴 숙제하랴 피곤해 죽겠어요.

- ① 힘들겠지만 그래도 넌 참을성이 많아서 무슨 일이든 잘 해낼 거야.
- ② 넌 편한 것만 찾니? 그래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
- ③ 그래, 할 일이 많아 피곤할거야.
- ④ 학교만 다니기가 뭐가 힘들어. 옛날에 비하면 요즘은 너무 쉽지.
- ⑤ 공부하기도 힘들텐데 학원까지 다니려니 고생이 많겠구나.

9. 엄마, 연락도 없이 늦어서 죄송해요. 걱정하셨죠?

- ① 네가 언제는 연락하고 늦었니?
- ② 물론 걱정이 되지. 늦으면 늦는다고 전화라도 하지 그랬니?
- ③ 지금이 몇시니? 다음에 늦으면 혼날줄 알아.
- ④ 걱정이 되지, 요새 별일이 다 있잖니? 밤 늦게 다니면 안돼.
- ⑤ 연락도 없이 늦으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10. 친구들과하고 등산가기로 했어요. 이번엔 꼭 보내주셔야 돼요.

- ① 가고는 싶겠지만 학생들이 무슨 등산이야.
- ② 친구들도 사귄 겹 가고 싶은 모양이구나.
- ③ 넌 매일 놀 궁리만 하니? 공부는 언제 하려고?
- ④ 이번엔 친구들과하고 등산을 꼭 가고 싶은 모양이구나.
- ⑤ 맑은 공기도 마실겸 이번엔 꼭 가야겠다는 말이구나.

11. 엄마는 저에게 너무 관심이 없어요. 성적이 떨어졌는지 올랐는지 아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하는데 통 신경을 안쓰시는 것 같아요.

- ① 엄마가 네게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단 말이지.
- ② 엄마가 관심이 없다고.....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 ③ 엄마가 제대로 뒷받침을 못해줬는데도 공부하느라 애를 많이 썼구나.
- ④ 그래, 엄마가 네게 신경을 못 써 줬구나.
- ⑤ 제 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니?

12. 오늘 수업 끝나고 친구집에 놀러 갔었어요, 안 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 할 수 없이 갔다 왔어요.

- ① 그런 일들 때문에 네가 공부를 소홀히 할까봐 걱정이구나.
- ② 놀러만 다니지 말고 정신 차리고 공부나 해.
- ③ 넌 못된 친구들을 닮아가려고 그러니? 어쩔려고 친구 집에 놀러만 다녀?
- ④ 친구와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걱정이구나.
- ⑤ 엄마는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남은 시간에 다른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네가 그렇지 못해서 걱정이야 .

13. 엄마는 너무 하세요,
친구한테서 온 편지를 먼저 보시면 어떻게 해요?

- ① 엄마가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네 입장을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구나.
- ② 네가 친구하고 편지나 할 때니?
- ③ 엄마가 먼저 편지를 봐서 화가 난 모양이구나.
- ④ 기분은 나쁘겠지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일이야.
- ⑤ 엄마가 먼저 편지를 본 것이 비밀을 침해한 것 같아 화가 나는 모양이구나.

14. 학년이 올라가니까 정말 정신차릴 수가 없어요. 과목 수도 많고 내용도 점점 어렵고 숙제도 많아서 참 힘들어요. 선생님도 무섭고요.

- ① 넌 이전에는 너무 편했어. 정신차려야 돼.
- ②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넌 잘 이겨내서 네 실력을 발휘할꺼야.
- ③ 학년은 뭐 거져 올라가는 줄 아니? 고생 좀 해 봐.
- ④ 학년이 올라가니까 힘드는 모양이구나.
- ⑤ 그래도 넌 인내심이 있어서 잘 적응할 수 있을 거야.

15. 입을 옷이 없어요. 옷을 좀 사주세요.

- ① 넌 옷이 많은데 매일 옷 타령이니?
- ② 외모를 단정히 하는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넌 옷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구나.
- ③ 학생은 아무 옷이나 입어도 괜찮은 거야.
- ④ 너는 옷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구나. 그러나 사람은 외모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움 마음씨가 더욱 중요해.
- ⑤ 넌 옷에 너무 신경을 써서 걱정이야.

16. 저는 친한 친구가 없어요, 마음을 터 놓고 이야기를 할 만한 애가 없어요.

- ① 마음 터놓고 이야기 할 만한 친한 애가 없단 말이지?
- ② 친구하고 어울리는 대신 공부에 재미를 붙이면 되잖아?
- ③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어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단 말이지?
- ④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친구가 없어서 괴롭겠구나.
- ⑤ 넌 사교성이 없어서 큰 탈이야.

17. 저 이번 일요일날 친구들과 야구장 가기로 했어요.
허락해 주시는 거죠?

- ① 네가 요새 갑갑한 모양이구나. 머리도 식힐 겸 갔다 오려므나.
- ② 학생이 공부는 안하고 운동 구경이나 다니면 뭐가 되겠니?
- ③ 넌 생각이 있니 없니? 다음 주에 시험 본다면서 어제 그 모양이야?
- ④ 야구가 보고 싶은 모양이구나. 대신 공부에 지장 있으면 안 된다.
- ⑤ 갔다 오려므나. 공부도 중요하지만 가끔 친구들과 어울려서 바람도 쐬어야지.

18. 사실은 거짓말할 생각이 아니었어요. 죄송하게 됐어요.
엄마, 화나셨죠?

- ① 그래, 화가 났다.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 ② 화날 건 없지만 학생이 그렇게 거짓말하면 되니?
- ③ 엄마가 그 정도 일로 화를 내겠니?
- ④ 네가 거짓말을 하니 기분이 좋을 리가 있니?
- ⑤ 그래, 속이 상한다.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지.

19. 엄마, 시험도 끝났으니 친구들과 영화구경 좀 다녀오겠어요.

- ① 영화구경도 좋지만, 시험이 끝났다고 놀려고만 하면 어떻게 하니?
- ② 그 동안 시험에 시달렸으니 오늘은 친구들과 실컷 놀아보고 싶은 모양이지.
- ③ 시험이 끝났으면 집에서 쉬지 무슨 영화구경이니?
- ④ 시험이 끝나서 신나는 모양이구나.
- ⑤ 그 동안 시험 때문에 쉬지 못했으니 이제 훌가분하게 놀고 싶은 모양이구나.

20. 나와 다른 사람(누나, 동생, 친구)를 비교하지 마세요.
공부만 잘하면 다예요?

- ①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 그러니?
- ② 그래, 성적보다 사람 됨됨이가 더 중요한 거야.
- ③ 비교되는 게 싫으면 너도 잘 좀 해라.
- ④ 그래 네 말이 맞다. 넌 성격이 좋아서 사회생활을 잘 할거야
- ⑤ 성적 가지고 비교해서 기분이 나쁜 모양이구나. 하긴 공부가 다는 아니지.

21. 오늘 이 옷 입는다고 했잖아요.
안 빨아 놓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 ① 엄마 마음도 편하지 않아. 오늘만 그냥 입고 갈 수 없겠니?
- ② 옷을 하루 더 입으면 큰일 나니? 넌 항상 옷가지고 투정이니?
- ③ 아휴! 나도 힘들어 죽겠다. 그럴 수도 있지. 그 옷 하루만 더 입어.
- ④ 보면 모르니? 엄마는 놀고 있었어?
- ⑤ 네가 그러니 엄마 기분이 안 좋구나. 엄마 사정도 생각해 주어야지.

< 부록 4 >

※ 학교적응에 관한 설문지

※ 다음은 여러분의 공부 및 행동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입니다. 질문지의 내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나는 선생님과 자유로이 대화를 나눌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학교에서 반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수업시간에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교실에서 조용히 생활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마음속의 비밀을 선생님께 이야기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6. 학교에서 터 놓고 이야기 할 친구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학교생활중 수업시간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복도나 층계를 다닐 때 좌측통행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선생님을 길에서 뵈면 반가워서 달려가 인사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여러 친구 집에 놀러가기도 하고 그 친구들을 나의 집으로 초대하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수업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약간 그렇지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아주 그렇다
12. 나는 주변활동을 열심히 한다.	않다 ①	않다 ②	③	④	⑤
13. 선생님은 나를 귀엽게 여기신다.	①	②	③	④	⑤
14. 학업문제를 친구들과 의논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5. 각 과목마다 숙제가 너무 많고 벅차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학교의 시설물을 조심히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학교에는 존경할 선생님이 한 분이라도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친구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1. 선생님들이 너무 명령적이고 딱딱하다.	①	②	③	④	⑤
22. 학급에서 친구들과간에 인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들은 흥미 있는 것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4. 화장실이나 수도를 사용할 때 질서를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25. 선생님은 내가 질문을 자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아주 그렇다
26. 나는 다른 학교로 전학 갔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수업시간 중 딴 생각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학교는 질서와 규율을 너무 강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선생님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30. 학교에서 가끔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수업중 질문을 받을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등교시간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